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156호

Tuesday, October 22, 2024 A

한인 주류정치 진출 70년 ... 231명 선출

KAI 미주한인정치연감①

1954년 하와이 필립 민 최초 본토 첫 당선은 알프레드 송 뉴욕 110명 최다 거주 50여명

미주 한인사회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가 한인 선출직의 기록을 정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는 최근 미주한인정치연감을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는 1954년부터 현재까지 231명의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보를 취합한 내용이다. 처음 선출된 필립 민부터 가장 최근인 엘리 세이드파크보로 의원 유봉 원-윤까지 총망라돼 있다.

필립 민은 1954년 하와이가 준주(准州)일 당시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하와이는 1959년 주로 승격됐다. 필립 민은 1966년에 사망했는데, 그해까지 주의원으로 활동했다.



필립 민



알프레드 송



김창준



유봉 원-윤

1960년에는 알프레드 호연 송이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파크의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본토에서 선출된 첫 한인 정치인이었다. 그는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첫 연방하원의원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활동한 김창준 전 의원이었다. KAI는 이후 225명 이상의 한인이 지방 정부부터 연방 정부까지의 다양한 선출직에 올랐고 당선된 주와 정치 성향도 다양했다고 분석했다.

연감에 따르면 뉴욕 지역 한인 선출직이 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50여 명으로 뒤를 이었고 북서부인 워싱턴과 오리건주에서도 20여 명이 배출됐다. 현재 KAI의 연감은 지역별 한인 선출직의 수를 보여주는 지도와 선출직들의 이름과 지역, 직책, 기간 등이 소개된 표로 구성돼 있다. KAI 측은 한인 선출직들의 약력과 활동 내용 등을 추가로 취합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상 등도 추후 게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임명된 한인 판사들 역

시 따로 취합할 계획이라고 한다.

KAI의 회장을 맡고 있는 버지니아 주의회 7선 하원의원 출신 마크 김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선출직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연감을 제작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 그는 “이들은 한인회와 민주평통 등 모임에서 축사를 전하고 가끔 상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이 대화하고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AI의 연감을 통해 전국의 한인 정치인들이 함께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 것이다.

한편 KAI는 2022년 워싱턴 D.C.에서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아직 정식 한국어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크 김 회장은 올해 초부터 회장직을 맡아 앞으로 이를 싱크탱크 형식으로 키우고 한인들이 두루 공감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다른 한인 단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남 기자

라틴계 유권자 49% “트럼프 지지”

해리스 지지는 38%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21일 나왔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도 이전 민주당 대선후보만큼의 강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투데이가 14~18일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유권자들의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는 해리스 부통령을 각각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흑인 유권자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은 72%의 지지를 받아 트럼프 전 대통령(17%)보다 55%포인트 우위에 있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런 흑인-라틴계 지지율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퓨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흑인 유권자의 92%, 라틴계 유권자의 59%의 지지를 각각 확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다만 여론조사에 참여한 흑인-라틴계 유권자의 규모가 적고 오차범위가 ±9%포인트로 큰 상대라고 USA투데이는 지적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 등의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라틴계 유권자 그룹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때 체는 부연했다.

“명문대 유펜에 한국학 센터” 김주진 회장 2500만불 기부

지난달 개소... 학교 신문 보도 미국내 한국학 허브 역할 담당

명문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이하 유펜-로고)에 한인 기업가의 기부로 한국학 연구 센터가 세워졌다.

유펜 신문인 ‘더 데일리 펜실베이니아’는 지난달 12일 문을 연 한국학 연구 기관인 ‘제임스 주진 김 센터(이하 김 센터)’의 개소식 행사를 지난 18일 보도했다.

김 센터는 앰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 김주진(88·영여명 제임스) 회장과 부인 김정숙(영여명 아그네



스)씨의 기부를 통해 설립됐다.

김 회장 부부가 지난 2022년 제임스&아그네스김패밀리파운데이션을 통해 2500만 달러를 유펜 측에 기부하면서 한국학 센터 설립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김 센터는 연구자를 양성하고 학자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미국 내 한국학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회장은 이미 지난 2011년 유펜 대학 측에 60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당시 대학 측은 한국학 과정을 ‘한국

학 제임스 주진 김 프로그램(James Joo Jin Kim Program in Korean Studies)’으로 명명한다.

김 센터의 집행위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옛우드 교수(동아시아학)는 “김 센터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여러 관련 연구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동시에 한국과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학문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센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주진 회장은 서울대 법대 재학중인 1955년에 도미했다. 1959년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펜실베이니아대학 교수, 동문 이사회,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장, 한국유학생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 왔다.

한인으로는 처음 와튼스쿨 학장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아남그룹 창업주인 고 김향수 앰코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앰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도체 전문 업체로, 그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400대 갑부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03년에 필라델피아 박물관 내 한국관 설립 기금, 2017년엔 서재필기념재단 등에도 거액을 기부한 바 있다.

장영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불변지팡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울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퓏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4-11/8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 | | | | |
|---|--|---|---|---|
|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여부, 러에 공 넘긴 정부

북 파병 관련 나토총장과 통화 나토총장 “한국과 협력해 대응” 러 “북과 관계발전은 우리 주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말해 대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즉각 나서기보다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 등 관련 동향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러·북 협력 대응) 과정에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대응 조치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나토가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이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답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안보회의 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주어는 윤 대통령이 아닌 ‘참석자들’이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 파병으로 안보 상황이 훨씬 엄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공하는지를 봐야지 북한이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다”며 “우리의 행동은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정해진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염두에 둔 ‘행동의 기준’은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핵 위협 고도화에 직접



김홍균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21일 오후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청해 엄중히 항의하고 있다. [사진 외교부]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과 뤼터 총장이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 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우리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밝힌 뒤 처음으로 북·러 협력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북한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며 “이번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북·러 간 불법적 협력을 합법으로 주장하며, 한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한 가지를 말하고 미국 국방부는 그러한 발언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순되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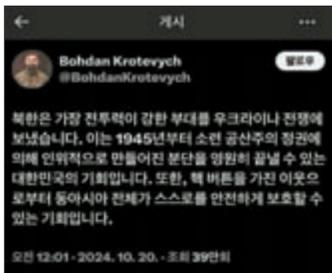
정부는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한 채 군사 기술·장비 이전에

대한 감시·추적을 강화하는 등 러시아의 행동을 주시하는 전술을 유지할 전망이다. ‘상대방이 해선 안 될 일은 명확히 규정하되, 선을 넘을 경우 우리 측의 대응은 모호하게 규정한다’는 역제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셈이다.

크렘린궁, 북 파병 보도에 “상충된 정보 많다”

정부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증거를 대량으로 공개한 뒤엔 “모든 수단”을 언급한 공식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은 언론과 전문가 등에 맡긴 채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



우크라이나, 한글로 “분단 끝낼 기회”
20일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어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보흐단 크로테비치 우크라이나 야 조우 여단 참모장. [X 캡처]

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김 차관은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를 접견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의 증거 공개를 기점으로 한층 적극적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선 우크라이나의 접근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연일 관련 영상과 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영상 연설에서 “우리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정상적이고 정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엔 ‘우크라이나전 이후의 한·러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깔렸다. 러시아가 이미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을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할 가운데 이를 넘는 건 대러 정책 자체의 전면적인 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냉전 종식 뒤 1990년대 이뤄진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이후 옛 공산권을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외교적 결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노비예프 대사가 김홍균 차관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뤄지며,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주재 대사가 초치된 뒤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러시아가 적반하장식 오만한 태도를 보인 셈이지만, ‘국제법의 틀’을 언급한 건 한국이 설정한 선을 의식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방외교 이후 대러 정책 대전환 앞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순간 그나마 한국이 갖고 있던 협상력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러시아로서는 극단적 조치도 참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북·러가 더 밀착하며 폭주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마저 있다.

한국과 러시아 간 다리가 완전히 끊어진다면 우크라이나전 이후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경우 북·러가 더욱 공고히 진영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무기 지원 선택지는 언제든 가동될 수 있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155mm 포탄이나 천궁-II 같은 대공 방어 무기를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55mm 포탄은 개전 초반부터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이 한국에 지속해서 지원 요청을 해왔던 항목이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등 한국이 보유한 대공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해 왔는데, 한국이 개발한 천궁-II 지대공 요격미사일도 ‘지원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선 살상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지원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총력전에서 방어용 요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도 군 안팎에 있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워싱턴 날씨 (°F)

| | | | | | |
|--------|-------|----|--------|-------|----|
| 23일(수) | 81~56 | ☀️ | 26일(토) | 71~44 | ☁️ |
| 24일(목) | 66~41 | ☀️ | 27일(일) | 60~38 | ☀️ |
| 25일(금) | 68~52 | ☀️ | 28일(월) | 63~44 | ☀️ |

10월 22일(화) 82~5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유,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집 \$660,000
자세한 내용은 '연순향' 리모?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해리스 지지’ 바바라 컴스탁 “왜 이러시나요?”

공화당적 불구 민주당 지지 행보

워싱턴 한인사회와도 밀접한 인연으로 친숙한 공화당 바바라 컴스탁(사진) 전 연방하원의원이 오는 11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민주당’ 행보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오는 대선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컴스탁 전 의원은 지난주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유세에 등장해 해리스 부통령 지지연설을 했다. 이 행사에는 반트럼프 공화당 인사로 유명한 아담 킨지어 전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등 100명 이상의 공화당내 반트럼프파 인사들이 동참했다.

컴스탁 전 의원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며,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에게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컴스탁은 “과거 대



선에서 바이든이나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았고, 대선 제3의 후보를 선택했으나, 이번에는 해리스에게 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가운데 컴스탁 의원은 현재 버지니아 제10지구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수하스 서브라만얌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컴스탁 전 의원은 프랭크 울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이 지역구를 승계했으나 재선에 그치고 말았다. 그는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니퍼 웨스턴 의원에게 패배해 정계를

사실상 떠난 상태다. 하지만 웨스턴 의원이 허귀 신경계 질환으로 오는 11월 선거에 불출마하고 서브라만얌 주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다.

서브라만얌 의원은 “나는 컴스탁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서 추진했던 정책에 모두 동의하지 않지만 그에 대한 존경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나를 지지해 준 컴스탁 의원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컴스탁 전 의원은 “나 또한 버지니아 주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서브라만얌 의원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초당적인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특히 북버지니아의 메트로 전철과 그린웨이 블로드 등 낙후된 교통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SSI 체크 배송일 변경됩니다

11월부터 저소득층 생계보조 자금 SSI 배송일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수혜자가 월초에 받았으나, 11월부터는 월초 배송 예정일이 공휴일이면 이전 달의 마지막 요일에 배송할 계획이다.

12월의 경우 배송예정일인 1일이 일요일이라 11월 마지막 업무일인 29일이 배송일이 된다. 따라서 11월 체크배송일은 두번이다.

내년 1월 체크도 12월31일 배송된다.

2월도 1월31일, 3월도 2월28일 배송될 예정이다. 4월은 정상 배송되면서 3월에는 체크가 한번도 배송되지 않는다.

한편 소셜시큐리티국은 내년 은퇴연금 등의 인상률이 2.5%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옥재 기자

“내 유권자 등록은 멀쩡한가?”

선거국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버지니아 귀화 이민 유권자 사이에서 유권자 명부가 그대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최근 비시민권자의 색출할 목적으로 차량등록국(DMV)을 통한 유권자 명부를 조사하면서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허위 유권자 명부 등록자 수천여명을 배제할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는 11월 대선에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법무부는 영킨 주지사의 이같은 행동이 선거일 90일 이전 유권자 명부를 확정하고 수정을 금지하는 연방선거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정부 선거국은 귀화 이민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버지니아 선거국 포털사이트(https://vote.elections.virginia.gov/VoterInformation)를 방문하면 된다

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시큐리티번호 마지막 4자리,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현재 유권자 등록 상태를 알려준다.

안드레 게인즈 버지니아 선거국 홍보과장은 “유권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부에서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이의 신청을 통해 유권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선거국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왔으며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명부가 삭제돼 있을 경우 재등록 절차를 통해 복원이 가능하며 다음달 선거도 참여할 수 있다. 김옥재 기자



알링턴-DC 연결 롱 브릿지 착공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와 워싱턴DC를 연결하는 롱 브릿지 철교 옆에 새로운 철교를 건설하는 공사가 시작됐다.

기존의 롱 브릿지는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철교이지만, 왕복 2개 선로에 동부지역 전체의 화물열차와 여객 운송 열차를 모두 감당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철도 병목 구간으로 꼽혀왔다.

연방정부는 플로리다부터 조지아, 노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리치몬드를 따라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으로 연결하는 대서양 연안 철도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10개 주요 여객철도 개선 프로젝트에 82억 달러를 투입했다.

롱 브릿지 철교 건설에는 모두 20억 달러 예산이 배정됐다. 이중 7억2900만달러는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이밖에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프레드릭 더글라스 터널 보강 공사에 47억달러, 뉴저지-뉴욕을 연결하는 허드슨 리버 터널에 38억달



러, 메릴랜드 서큐하나 강 다리에 21억 달러 등을 지원했다.

당국에서는 기존의 롱 브릿지 철교를 보수하는 한편, 새로운 양방향 2개 선로의 철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워싱턴DC-보스턴 철도 구간은 미국에서 열차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으로, 매일 80만명이 이용한다. 당국에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고 열차 최대 시속이 110마일에도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미 기자

자동차 배기시스템 조작 단속 몽고메리 카운티 카메라 설치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차량폭음기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의하면 배기 시스템을 개조한 차량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감시하기 위해 3대의 소음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카메라에는 소음 측정용 마이크가 장착돼 있으며, 위반 차량을 촬영하게 된다.

첫 번째 위반시는 경고장이 발부되며, 두 번째 위반부터 75달러의 민사법칙금 티켓이 발부된다. 이 프로그램은 2026년 6월 말에 종료되는 한시 프로그램이지만,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는 자동차 머플러 조작 등으로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량 소유주를 처벌한 법률을 지니고 있으나, 단속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전했다. 김옥재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옴니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엇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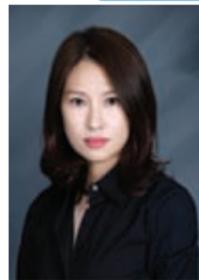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K푸드에 불경기 없다... 라면·김 승승장구

3분기 누적 대미수출 역대 최고 18.7% 증가...20억불 달성 전망 라면 62.5%·김은 25.3% 증가 K스낵과 K소주 증가도 돋보여



올해 3분기까지 라면 대미수출액이 전년 대비 62.5%나 급증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인마켓 라면 섹션에서 고객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1,000)

| 품목 | 2023년 | 2023년 1-9월 | 2024년 1-9월 | 증감률(%) |
|-----------|-----------|------------|------------|--------|
| 농림수산물 | 1,740,135 | 1,278,038 | 1,516,679 | 18.7 |
| 농림축산식품 | 1,313,832 | 960,969 | 1,160,854 | 20.8 |
| 수산물 | 426,303 | 317,069 | 355,825 | 12.2 |
| 과자류 | 211,809 | 149,736 | 205,461 | 37.2 |
| 김 | 169,545 | 127,781 | 160,125 | 25.3 |
| 라면 | 126,588 | 97,212 | 157,993 | 62.5 |
| 쌀가공식품 | 114,778 | 80,059 | 126,459 | 58 |
| 음료 | 83,342 | 64,709 | 70,737 | 9.3 |
| 면류(라면 제외) | 86,467 | 64,824 | 68,133 | 5.1 |
| 김치 | 39,989 | 30,644 | 34,059 | 11.1 |
| 기타 소스제품 | 34,935 | 25,642 | 32,119 | 25.3 |
| 아이스크림 | 22,020 | 20,654 | 26,328 | 27.5 |
| 인삼류 | 19,927 | 15,480 | 19,608 | 26.7 |
| 리큐르 | 21,722 | 14,499 | 19,323 | 33.3 |

자료: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LA지사

올해 3분기까지 한국 농수산물 대미 수출액이 15억1667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라면과 김밥을 포함한 쌀가공식품의 증가 폭이 눈에 띄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홍문표) LA지사(지사장 김민호)는 올해 3분기까지 대미수출액이 전년 대비 18.7% 증가해 경기하강에도 K푸드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표 참조>

김민호 aT LA지사장은 "라면,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은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총 수출액을 추월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올해 20억 달러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과자류의 수출액은 2억546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다. 회복칩 등

코스트코 유통과 가공밥의 판매 급증이 과자류 수출을 견인했다.

수출액이 두 번째로 높은 김은 1억 6012만 달러로 25.3% 늘었다. 라면은 1억 57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나 뛰어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김민호 aT LA지사장은 "지난해 이어 라면의 대미수출액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현지 생산을 고려하면

미주지역에서 라면시장은 훨씬 크다"며 "라면 소비가 비한인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냉동김밥, 떡볶이, 떡, 막걸리 등이 비한인에게 인기를 끌면서 쌀가공식품도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다. 쌀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1억 2645만 달러를 기록하며 라면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라면,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총 수출액을 넘어선다. 9월까지 라면 누적 수출액(1억 5799만 달러)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대미수출액인 1억 2658만 달러를 넘어섰다.

아이스크림 경우 팬데믹 때 물류대란으로 일부 코스트코 지점에 납품하

지 못했던 빙그레 메로나가 물류난 해소로 납품하는 지점이 대폭 늘어 수출액도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품목별 수출 실적과 비교해 보면 장류, 고추장, 커피 조제품, 유자는 상위권에서 밀려나고 소스, 아이스크림, 인삼류, 리큐르 등이 새로 진입했다. 소스, 아이스크림, 인삼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27.5%, 26.7% 늘었다.

인삼류는 지난해 수출이 주춤했지만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리큐르는 과일 소주로 타깃, 토달와인 등 주요 소매업체 유통과 비한인 선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3%나 증가한 1932만 달러를 기록해 소주를 추월했다.

김민호 지사장은 "대미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물가상승으로 소비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K푸드 소비가 지속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트레이더즈, 코스트코 등 고객 충성도가 높은 현지 마켓에 입점하면서 K푸드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영 기자



'프렌즈 오브 코리아' 회원 초청 만찬 19일 '프렌즈 오브 코리아(Friends of Korea: FoK)' 회원 초청 만찬행사가 LA총영사관 관저에서 열렸다. FoK는 1966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 파견됐던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단원을 중심으로 한미간의 문화교류 및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LA에서 연례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LA총영사관은 이번 만찬을 계기로 FoK와 태평양세기연구소(Pacific Century Institute: PCI)를 연계해 '한미 우호의 밤'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요한(오른쪽) 국회의원, 스펜서 김(가운데) PCI 공동창립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인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 본지 보도 SNS에 공분 확산

유명 틱톡커가 알려 댓글 1천개 "정의 원한다" 학교측 대응 비판



량의 동영상을 통해 본지 영문기사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영상으로 케치업 뉴스 주요 내용을 캡처해 빨간 줄을 그어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 2명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도 학교 측의 단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팔로워 57만2000명을 둔 틱톡커 에드 최(아이디 Etchaskej·사진)씨는 본지 영문 뉴스레터 케치업 뉴스를 인용해 LA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벌어진 백인 학생 6명의 한인 학생 2명 괴롭힘 및 집단 폭행 사건을 틱톡을 통해 알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올린 5분26초 분

특히 최씨는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벌어진 백인 학생들의 한인 학생 괴롭힘과 집단 폭행 사건을 학교 측이 방관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치몬트 차터스쿨 측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인 한인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되레 백인 학생들을 감싸기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본지 보도 내용에는 1만

78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1148명이 댓글을 달며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고 있다.

틱톡 이용자 레이첼은 "정말이지 거북하다"며 라치몬트 차터스쿨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미스터 해터는 "라치몬트 차터스쿨에 후기를 남기는 일을 잊지 말자"라는 댓글을 남겼다. 앤드리 하에스는 "(피해 본)아이들이 불쌍하다. 그들의 변호사는 당장 나서야 한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밖에 '같은 아이들 둔 부모로서 피해 학생과 부모들의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정의를 원한다', '눈물이 난다. 학교 측의 대응이 역겹다' 등 여러 댓글이 달리고 있다. 김형재 기자



전화:

1-888-274-8683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ASIAN &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JC

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조정합의도 무산

법원 "소유 부동산 감정할 것"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거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제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담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립넥스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모기지 금리 올라도 주택시장 안정세

주택시장지수 두 달 연속 회복

주택시장지수 두 달 연속 회복
잠정주택판매 3년래 큰폭 증가
캘리포니아·오리건·포틀랜드 등

주택건축 업체들의 시장에 대한 확신이 두 달 연속 회복세를 나타냈다.

최근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10월 주택시장지수는 43으로 직전월 수치 41에서 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시장지수는 신축된 단독 주택 시장에 대한 건설업체의 신뢰 정도를 반영한다.

NAHB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둔화되고, 모기지 금리가 향후 수개월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자신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지수는 10월에도 여전히 '50'을 밑돌았다. 50은 주택 건설업황 악화과 개선을 가능하는 기준선으로 50을 밑돌면 업황 악화, 50을 웃돌면 업황 개선으로 여겨진다.

이 지수는 지난달,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달에도 회복세를 지속했다.

칼 해리스 NAHB 회장은 "주택 구

매력은 아직 낮은 상태지만 건설업체들은 2025년 시장 상황에 대해 한층 낙관적이 됐다"고 말했다.

NAHB 수석 경제학자 로버트 디츠는 앞으로 수분기 동안 모기지 금리가 고르지 않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로 인해 주택 수요는 개선되겠지만 개발·건설 관련 대출 조건 강화가 부지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징후는 잠정주택 판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이달 13일까지 4주간 잠정주택판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인구가 많은 50개 지역 중 34곳에서 잠정주택판매가 늘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포틀랜드의 증가 폭이 컸다.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4.7% 올라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월세는 한 달 전보다 100달러 가까이 비싸졌다.

레드핀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 초기 단계 수요가 다소 둔화했지만, 주택 구매자 수요는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으로 40억불 금융 범죄 적발

연방 정부가 각종 금융범죄와 싸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에 따르면 머신러닝 AI를 이용해 2024 회계연도에만 전년 대비 6배나 급증한 총 4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사기를 예방하고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CNN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AI는 방대한 데이터 검색을 통해 10억 달러 상당의 수표 사기를 적발했는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재무부가 회수한 금액의 거의 3배에 달한다.

재무부 회계정책 및 금융투명성 담

당 레나타미스켈 차관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정말 혁신적이었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사기 적발 및 예방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다수의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금융 범죄를 적발하는데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AI 도입 목적은 랜데믹 기간 연방정부가 소비자들과 기업에 긴급 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급증한 사기 범죄로부터 납세자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끊임없이 쏟아지는 데이터를 살살이 검토하고 미묘한 유형을 감지하는 데 있어 정교한 AI 모델을 학습시키면 단 몇 밀리초 만에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낼 수 있다.

미스켈 차관보는 "AI 시스템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긴 하지만 항상 사람이 개입한다"며 "사기 여부는 연방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청(IRS)도 지난해 헤지펀드, 로펌 등의 대규모 복잡한 세금 보고서류 검토를 통한 탈세 적발을 목적으로 AI를 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미주 선수단, 전국체전 3연승

경상남도 김해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외동포 부문에서 미주 한인 선수단이 종합우승을 차지해 3연승의 쾌거를 이뤘다. 재미대한체육회(회장 정주현) 선수단은 지난 17일 막을 내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를 따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체전 참가 37년 역사상 최다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부산에서 개최된다. 폐회식이 끝난 뒤 정주현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장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미주 한인 선수단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재미국대한체육회 제공]



포드, LG엔솔과 대규모 배터리공급 계약

포드 자동차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대규모 상용차용 배터리를 공급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포드와 총 10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 상용차 배터리 셀·모듈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전량 생산

될 예정이다. 시장 추정 13조원(약 9억 5000만 달러)으로, 전기 상용차 수주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공급계약은 지난해 양사가 튀르키예 합작 법인을 세워 생산하려던 물량에, 신규 수주 물량이 추가되며 규모가 커졌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에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

년간 75GWh,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해당 배터리는 포드의 차세대 전기 상용차 모델인 이-트랜짓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출력과 장수명, 고에너지밀도가 요구되는 상용차 모델 특성상 '고성능 삼원계 파우치형'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혜리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락소풍)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 뉴타운

미락소풍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은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Nationwide® is on your side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흑인교회서 기도한 해리스... 맥도날드서 감자 튀긴 트럼프

대선이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양측이 막판 선거 유세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핵심 타깃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군'을 전면에 내세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일 흑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치며 표심 결집에 주력하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공동 유세에 나선다. 서민·여성층에서 열세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간 멀리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고, 혐오를 확산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혼동을 일으키려는 이들이 있다"며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해리스 대신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반면 낮은 국정 지지율을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는 아예 공동유세 계획이 없다.

60세 생일을 맞은 해리스는 20일 조지아주 스톤크레스트에 있는 흑인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 흑인교회 예배 참석에 이어서다. 해리스는 이날 "나라의 분열을 심화하

해리스의 막판 승부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내세워 흑인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다. NBC에 따르면 해리스는 24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첫 조지아 공동 유세에 나선다. 26일엔 미셸 오바마와도 유세 무대에 선다. 반면 백인

"금수저" 자산가 이미지가 강한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앞치마 차림으로 감자튀김을 만들고 드라이브스루 주문

을 받았다. 특히 이날 행보는 해리스가 과거 "대학 때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며 친서민 후보임을 자처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맥도날드 방문 직전 SNS에 "맥도날드에 확인한 결과 '거짓말쟁이' 해리스는 일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터뷰에선 '니키 헤일리가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그녀는 그렇게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막판 유세엔 머스크와 헤일리가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유세에 직접 등장한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 한 명을 뽑아 매일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사실상 서민을 겨냥한 '현금 살포성' 지원에도 나섰다. 다만 머스크가 청원 서명의 자격으로 대표 행위에 해당하는 '유권자 등록'을 내걸면서 주춤하는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선거전문 사이트 디지전데스크HQ(DDHQ)의 자체 예측 결과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52%로 올라서며 42%로 떨어진 해리스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이트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해리스를 앞선 건 8월 말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는 또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

더힐은 "트럼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선전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는 주요 경합주 가운데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상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해리스가 앞선 곳은 펜실베이니아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대선 앞두고 멕시코 종단 이민행렬 증가

대통령선거(11월 5일)를 보름 남겨두고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로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다.

에 돈을 건네고 버스나 화물차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갈취·납치·성폭력 등 피해를 보기도 한다.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캐러밴' 2천여명은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를 목표로 지난 주말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도보 이동을 시작했다고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민자들은 미국 대선을 전후로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이민 관련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시비피원·CBP One)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캐러밴은 대규모로 무리 지어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을 가리킨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당국과 협의해 멕시코시티 및 일부 북부 국경지대에 제한된 CBP 원 등록 가능 지역을 늘리려는 안을 추진 중이다.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접경 지역인 타파출라에서의 캐러밴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1일 이후 이번이 3번째다. 다만 앞선 2차례는 수백명 단위였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미 멕시코 북부에 도착한 이들의 무리한 월경 시도도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를 종단하는 이들은 개별 이동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날을 정해 한꺼번에 움직인다.

베네수엘라 일간 엘나시오날은 미국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을 인용, "최근 몇 주간 서류미비(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영토에 닿기 위해 (멕시코 국경 지대의) 강을 건너는 위험한 행위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도로를 따라 다 함께 걷거나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는데, 때론 범죄조직

트럼프 지원 나선 머스크 "내가 암살당할 위험 극적으로 커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암살당할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21일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사진=일론 머스크 X 계정 캡처)에서 자신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지원 유세에서 "내가 암살당할 위험이 아주 극적으로 커졌다"며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찢어 붙인 듯한 형태로 합성한 이미지가 '적 2호'(Enemy number two)라는 제목 아래 게재된 것이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기존의 주류 미디어는 도널드 트럼프와 나에 대한 암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머스크는 또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해당 청원 동참을 권유한 사람에게서 서명자 1명당 47달러를 지급해 왔으며,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 주민에 대한 이 보상을 100달러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는 이런 발언이 담긴 영상과 함께 독일 매체 슈피겔의 영어 기사 제목과 이미지가 담긴 온라인 페이지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이는 머스크의 얼굴 사진과 트럼프의 얼굴 사진 일부를

머스크는 지난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암살 시도를 가까스로 모면한 직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으며, 최근에는 대선 일이 가까워지면서 전폭적인 지원 공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9일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고 유권자로 등록한 주민에게 매일 한 명을 추천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전날 NBC 방송에 출연해 머스크가 유권자 등록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대표 행위가 아닌지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원을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지난달까지 3개월간 약 7천500만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막바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던킨 도넛 빌딩 2층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Greenmount 시니어 센터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시루와 같은 건물 2층



오 향 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목회자 가정의 치유, 샬렘에서 찾았다

비영리단체 기프트포커뮤니티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
목사 부부 심적·영적 회복 제공
조셉 전·리디아 전 박사강연



1 기프트포커뮤니티가 개최한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기프트포커뮤니티가 개최한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에서 목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프트포커뮤니티 제공]

비영리단체 ‘기프트 포 커뮤니티 (GIFT for Community, 이하 기프트·공동대표 조셉 전 박사·리디아 전 박사)’가 주최한 제4차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이 5일부터 7일까지 부에 나파크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사역 중인 목사들과 사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도전에 대해 심리적,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5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을 위해 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일 동안 섬김과 헌신으로 프로그램을 도왔다.

자원봉사자들은 새벽 4시부터 준비하여 풍성한 식사를 제공했으며, 프로그램 내내 진심 어린 섬김을 아끼지 않았다.

‘샬렘’은 히브리어로 ‘완전한(whole or complete)’을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타인을 발견하기’는 각 참가자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고, 사역의 목적을 재정립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기프트가 제공하는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로, 목회자와 사모들이 사역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심리

적, 정서적으로 치유하고,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

◆프로그램의 배경과 필요성

현대 교회 사역자들은 많은 시간을 교인들을 돌보며 보내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신 건강과 관련된 훈련이나 지원을 받지 못해 심리적 부담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중소형 교회들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과 교인의 감소로 인해 사역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샬렘 전인적 리더십 프로그램’은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힘과 격려, 그리고 심리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다. 특

히, 프로그램의 강의를 목회자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성경적 진리와 심리학적 지식을 통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주요 내용

이번 세미나는 다양한 임상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조셉 전 박사와 리디아 전 박사가 진행했으며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서로의 내면을 탐색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억눌린 감정과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히 자신들의 내면에 오랜 시간 자리잡고 있던 상처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한 참석자는 “세미나를 통해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나를 향한 계획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진

정한 회복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부 관계에서의 소통이 회복되었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많은 참석자들이 ‘상처받지 않는 마음(unoffendable heart)’을 강조한 강의 내용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강의는 참석자들이 목회 중에 받는 여러 비판과 상처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기프트의 비전

기프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그들의 사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서도 함께 참여하여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셉 전 박사와 리디아 전 박사는 각각 의료와 심리학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이 단순한 성경적 지식뿐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두 박사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프트측은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건강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이메일(giftshalem@gmail.com)/홈페이지(giftforcommunity.org)

정명석 도운 ‘2인자’ 징역 7년형

여신도 뽑아 ‘주님옆에 자라’
정명석 신격화 교인들 현혹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의 공범 김지선(46)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정조은(활동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온 ‘JMS 2인자’로, 피해 여신도들을 정명석씨에게 유인하는 등 성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30)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정명석)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내가 예쁘기 때문이다”라고 답하며 범행에 동조한 혐의도 있다.

JMS에서는 하나님이 정명석 몸을 빌려 현대에 재림했으며, 정명석은 신랑이고 신도들은 신부라는 교리를 가르쳐왔는데, 김씨는 이같은 교리를 세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드러났다. 김씨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인양스타’로 뽑아 관리하면서 정씨 범행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걸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김씨는 JMS 내에서 어느 신도들보다 정명석의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했다”며 “정명석이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2인자 정조은 목사. [사진 MBC ‘PD수첩’ JMS, 교주와 공범자들 편 방송 캡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히 김씨가 ‘정명석의 후계자’로서 JMS 내에서 수년간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죄가 무겁다고 봤다. 김씨는 “정명석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 진술도 믿을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를 정명석에게 데려다 주고 건물 밖에서 대기한 민원국장 A씨(52)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다시 데려오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정명석이 성범죄로 10년형을 받아 수감된 동안 여신도들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신도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정명석에게 보내줌으로써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성적 습벽을 유지 또는 촉진시켰다”며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돌아가게 했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정씨의 말을 통역한 B씨는 징역형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마치 종교적 행위인 양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정씨의 말을 통역한 죄는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이 참작됐다.

2심 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인용했다. 다만 함께 기소돼 방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행비서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정씨의 성범죄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김씨 등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정명석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2일 2심에서 준강간·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즉시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정씨가 또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증거를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최서민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극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허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맞이 특별세일

20% 할인
여성의류, 극세사 이불, 모자, 가방, 내의, 강아지옷, 이불, 소품

침구세트 세일 20% off

사계절 면이불 • 베개 • 이불패드

가을, 겨울옷
신상
대량입하!



공진단 • 침향환 특별세일

| | | | | | |
|---|--|--|--|--|---|
| <p>20% 할인</p>  <p>홍근당 침향환 프리미엄</p> <p>침향은 나무에 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생성되는 진액이 수백년간 굳어져 만들어진 귀한 원료로 세계 3대 향 중 유일한 식물 원료입니다. 홍근당 명품 침향보화는 이 귀한 침향의 함량을 22%로 만들어집니다.</p> | <p>20% 할인</p>  <p>김소형 침향환 녹용</p> <p>침향분말 22% 함유 16가지 전통 원료(오가피, 뽕나무잎, 진피, 참당귀, 천궁, 감초, 작약, 황금, 건조차가버섯, 사양발꿀, 녹용, 홍삼, 로얄젤리, 산삼배양근)와 침향 22%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p> | <p>20% 할인</p>  <p>광동 침향환</p> <p>광동이 자체연구를 통해 얻은 황금비율 배합으로 18단계 원료 품질 검증 17단계 생산공정, 511가지 원료 품질 규격 검사, 10단계 완제품 품질 검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p> | <p>20% 할인</p>  <p>천호식품 천진단</p> <p>천하를 다스리는 힘 귀한 천진단은 청정지역 뉴질랜드산 녹용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친 침향, 산수유, 참당귀 등으로 만들어집니다.</p> | <p>20% 할인</p>  <p>광동 경옥고</p> <p>동의보감의 전통방식을 기반으로 인삼, 복령, 생지황, 꿀 등 엄선된 약재만을 원료로 사용하여 섭씨 98도에서 120시간(5일)을 달이는 중속과정을 통한 노력과 정성을 담아 만든 한방 영양제입니다.</p> | <p>20% 할인</p>  <p>황실의 보약 산삼 공진단</p> <p>사향/ 산삼/ 녹용/ 당귀/ 산수유</p> |
|---|--|--|--|--|---|

풍기홍삼 직영점 입점기념 스페셜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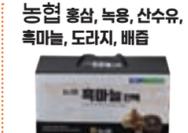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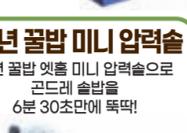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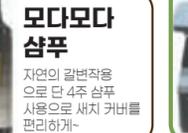
| | | |
|--|--|--|
| <p>홍삼정환골드</p>  | <p>6년근 홍삼분말</p>  | <p>풍기 진 홍삼액골드</p>  |
| <p>홍삼액 수</p>  | <p>6년근 봉밀홍삼절편</p>  | <p>홍삼정 올데이</p>  |
| <p>산삼 배양근</p>  | <p>건삼</p>  | <p>녹용홍삼</p>  |
| <p>고려태극삼</p>  | <p>황풍정</p> <p>석류 홍삼 콜라겐</p>  | <p>고려 홍삼차</p>  |

홍근당

| | |
|--|---|
| <p>홍삼 마일드</p>  | <p>전립선</p>  |
| <p>LACTO FIT 락토픽 생유산균</p> | |
| <p>이문 코어 슬림 골드 당 케어</p>  | |
| <p>아이클리어</p>  | <p>홍삼스틱</p>  |
| | <p>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p>  |

천호식품

| | | |
|---|---|--|
| <p>함께 먹어 더 좋은 녹용 홍삼</p>  | <p>목 건강을 위한 도라지 200</p>  | <p>남자한테 참 좋은 마시는 산수유</p>  |
| <p>새콤달콤한 맛이 그대로 진한 석류</p>  | <p>매일매일 활기차게 민들레와영귀</p>  | <p>냉새우고 맛있는 흑마늘 진액</p>  |
| <p>양배추 주스 100 프리미엄</p>  | <p>천진단</p>  | |

| | | | |
|--|---|---|--|
| <p>버지니아 총만</p> <p>장수 브랜드 효능 2배할 수 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p>  | <p>농협 홍삼, 녹용, 산수유, 흑마늘, 도라지, 배즙</p>  | <p>항균, 항산화효과 프로폴리스</p>  | <p>선삼정</p>  |
| <p>MSM+칼슘의 만능 포스트신바이오후코이단</p>  | <p>관절 및 연골 건강 하이웰 프리미엄 홍합 12000</p>  | <p>종년 꿀밤 미니 압력솔 종년 꿀밤 옛날 미니 압력솔으로 끈드레 솔밤을 6분 30초만에 똑딱!</p>  | |
| <p>홍쌍리 청매실원 50년 이상된 전통향아리에 넣어 발효속성한 매실원액</p>  | <p>우메켄 전제품 석류, 제철액기스, 발효미네랄, L-칼슘</p>  | <p>모다모다 샴푸 자연의 꿀벌작용으로 단 4주 샴푸 사용으로 머리 케어를 편리하게!</p>  | |

| | | | | | | | |
|---|---|---|--|--|---|--|---|
| <p>바누 저당밥솥</p>  | <p>신일 롤링스팀 청소기</p>  | <p>바누 다기능 티팟</p>  | <p>누리아이 5800</p> <p>눈안마 눈안마기</p>  | <p>다기능 디지털 우퍼 스피커 호도 라디오</p> <p>NEW</p>  | <p>NUC 만능분쇄기</p>  | <p>집에서 쉽게 누룽지 만드는 벨젤 누룽지제파기</p>  | <p>메디테라피 온열뜸 힐링 솔루션 불이는 릴렉스 팻</p> <p>불도 필요없고 냄새도 없어 안전하게 사용 아깨질림, 근육통, 생리통</p>  |
|---|---|---|--|--|---|--|---|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 | | |
|--|---|--|
|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color: yellow;">애난데일점 (703) 256-5500</p> <p>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자이언트 & 곰바우 식당 옆</p> | <p style="font-size: 1.5em; font-weight: bold; color: yellow;">센터빌점 (703) 830-7755</p> <p>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앞, 신라제과, 하하핑크 사이</p> |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영업시간 9:30am ~ 7pm (365일)</p> |
|--|---|--|

“할말 다해, 반응이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한동훈

윤·한 81분 회동... 합의문 발표 못해 한, 김여사 활동중단 등 3개안 요구 용산선 ‘당정, 하나되기’ 의견 일치 여권 ‘입장차도 확인 못한 최악 회동’



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회동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동 직후 박정화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말했다”고 밝혔다. 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쪽 편에 윤 대통령이, 맞은편에 한 대표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자리했다. 이에 따라 1대2의 모양새로 81분간 회동이 이어졌다. [사진 대통령실]

우여곡절 끝에 마주 앉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81분간 만났지만, 사실상 각자 다른 소리를 냈다. 한 대표는 그간 주장한 대로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의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등 3가지 방안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호응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동에 대해 “서면 브리핑이 없다”고만 하고 공식적으로 침묵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의 반응을 저하가 말씀드리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를 두고 주변에 “할말은 다했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이날 유일한 브리핑은 회동에 배석하지 않은 박정화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이 한 대표의 구술을 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박 실장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 필요성을 말했다”며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대외활동 중단, 의회사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했다”며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

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는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고 했다. 이어 “고불가·고급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했다”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오후 개최되던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는 의·정 갈등 관련 여권 내 이견이 노출된 8월 말 이후 두 달가량 멈춰선 상태. 한 대표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서 박 실장은 “(한 대표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며 “대통령실에 취재해 달라”고만 했다. 회동 직후 한 대표의 반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해가진 상황이라 한동훈 대표의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전반적인 면담 분위기에 대해서도 “제가 배석하지 않아 분위기를 전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분위기가 좋았다. 산책도 하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야당의)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과는 온도 차가 컸다. 여권 일각에선 “입장 차이마저 확인할 수 없는 최악

의 회동 결과”란 탄식이 나왔다. 부정적 회동 결과를 암시하는 경고음은 회동 직후부터 울려댔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가 직접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만남이었다”고 좋게 브리핑을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회동이 끝난 뒤 한 대표는 직접 브리핑하지 않은 채 박 실장에게 회동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떠났고, 박 실장이 국회로 이동해 대신 브리핑했다. 여권 관계자는 “냉담했던 회동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동 직후 곧바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이 빠졌던 것은 결국 핵심 의제인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 대표는 당정 지지율 위기 상황과 민심 이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양측이 합의할 대안으로 거론되던 특별감찰관이나 김 여사 사과 등도 회동 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24분 늦은 오후 4시54분에 시작해 81분간 진행됐다. 두 사람은 차담에 앞서 대통령실 야외 잔디 마당인 파인그라스에서 10여 분간 산책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이라며 면담이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은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현양(顯揚)된 고(故) 이재현 경찰 등을 언급하며 “경찰 영웅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도 했다. 산책엔 두 사람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부수석 등 일부 대통령실 참모도 함께했다. 산책 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해 회동에 돌입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을 감싸듯이 안고 두드려줬다고 대통령실 관계

자가 전했다. 두 사람의 개별 면담은 7월 30일 이후 83일 만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회동 사진에 따르면 기다란 테이블 한쪽 편에 윤 대통령이, 맞은편엔 한 대표와 정 비서실장이 앉았다. 윤 대통령 앞엔 펜이나 메모지는 없었고, 한 대표 옆엔 그가 가져온 빨간색 파일이 놓였다. 파일 안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 자료나, 회동 의제가 정리돼 있었다”며 “한 대표가 회동 전만 해도 ‘대통령에게 설명하다가 혹시 놓칠까 봐 파일에 정리해서 간다’고 의욕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자리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대표 자리엔 제로콜라가 놓였는데 이는 평소 제로콜라를 마시는 한 대표를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날 자리 배치를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자리 배치만 보면 정 실장이 배석이 아니라 한 대표와 동격으로 간주된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 배석을 제안하면서 이번 회동이 성사됐다.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 측은 배석자로서 정 실장의 참석을 받아들인 것인데, 자리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한 대표를 카운터파트로 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회동마저 별다른 공감대에 이르지 못하면서 여권의 위기는 더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야권의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맞선 여당의 이태표 단속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명태균 의혹 등을 더해 김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손국희·김기정·박태안·윤지원 기자**

윤·한 회동 직전 여야 대표 회담 발표 이재명 제안, 한동훈 3시간만에 수락

한동훈·이재명, 문자로 사전 소통 여당 “안만날 이유 없어서 만날 뿐” 정계 “시점 묘해”... 최종성사 미지수 야당 윤·한 회동 뒤 “한, 결단할 시간”

통령을 잘 설득하셔서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님이 오늘 면담을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2차 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3시간 뒤 국민의힘에선 한 대표의 수락 입장이 나왔다. 박정화 비서실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 회담에서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에 관해선 두 사람 간에 사전 소통이 있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조만간 2차 회담을 갖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여기에 한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주는 아니지만, 두 분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은 열려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이날 공식 제안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회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과 연동해, 양당 대표 후속 회동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이르면 10월 말께도 회담이 가능할 텐데 당연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과 한 대표 회동

결과에 많은 게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윤·한 회동’ 테이블에 오른 의제들이 뒤늦게 간에 마지막엔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한 대표 측은 ‘윤·한 회동’과 ‘여야 대표 회담’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당정 간 간극을 과교들겠다는 노림수가 이 대표에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표가 이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 특별한 계산 없이 ‘안 만날 이유가 없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굳이 이 시점에 여야 대표 회담을 공개적으로 수락한 것 역시 대통령실 압박용 아니겠냐”(친윤계 의원)는 해석도 있다. 한 대표 측은 그간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으면 김건희 특검

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말해왔다. 실제로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실무 협상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데다, 앞서 1차 회담에서도 의제와 생중계 여부 등을 놓고 양측이 십여 일간 신경전을 벌이면서 수차례 결렬 위기를 넘나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윤태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 입장에서 야당이 장외 집회에 힘을 심는데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제는 한동훈 대표 자신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윤지원 기자**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 디시 콘도 렌트, 스튜디오 \$2100 아메리칸 대학, 조지타운대학, 조지워싱턴 대 차로 10분거리
- 스텔링 2024년 지어진 새 콘도 \$2800 방2 + 화2 즉시 입주 가능
- 덤프리 타운하우스 \$2350 방3, 화2.5, 즉시입주 가능
- 우드브리지 콘도 \$2800 2005년 지어진 새 콘도 방3 + 화2, 차고 1 게이트 커뮤니티 넓고, 밝은 깨끗한집, 즉시 입주가능
- 타이슨코너에 인접한 타운하우스 비엔나 \$3300 방3+ 화3.5, 지하실 넓고 작은 뒷마당겸비, 즉시입주가능

독점 리스팅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탐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대표 / 약속같은 부동산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4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 |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중증보험 적용 됩니다 |

구인 리셀러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야당, 김여사 동행명령장 들고 관저 시위... 여당 "망신주기용"

현직 영부인 동행명령장은 처음 관저 경호인력에 막혀 전달 못해

심우정, 불기소된 도이치 사건에 "향고 댄 수사지휘해 철저히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직접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찾아갔지만, 경찰 병력과 대통령실

경호처 인력에 막혀 동행명령장 송달에는 실패했다.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날 오전 법사위 17명 중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전원 찬성하며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전례 없는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맞게 국회도 임해야 한다. 김 여사는 다른 증인들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야당은 이후 동행명령장 직접 송달에 실패하자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꾸짖고, 동

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하고 송달을 방해한 증인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해 달라"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고, 정 위원장은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걸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견태 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에 어떻게 수사권을 주느냐.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릴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복원하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

가 없었던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심 총장은 "(수사팀의) 결과가 부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사팀이 모든 증거와 법리를 숙고해 처분했다고 보고 받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에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다시 점검할 수 있게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박탈된 상태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서면으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휘권을

행사했다. 다만 항고 사건은 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관할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하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심 총장은 또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를 함께 수사하면서 김 여사 주거지·사무실·휴대폰까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처럼 허위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사안으로 감찰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수민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이건태 의원(오른쪽부터)이 2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이날 이들은 1시간3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으나 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이날 이들은 1시간3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했으나 명

강혜경 "윤 대통령 유리하게 여론조작, 대가로 공천" 주장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김여사 공천의혹' 관련 발언 "윤 대통령 당선 전 81차례 여론조작 명태균, 3.8억원 대신 공천 받아와" 여당 "강씨 주장, 대부분 명씨 전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씨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연루된 김 전 의원이 "명태균 덕을 봤다"고 말한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과거 명씨가 주도한 여론조사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강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

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 냈다"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장사 의혹이었다. 강씨가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2023년 5월 23일 통화 녹취록에서 김 전 의원은 "내 입장에서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라고 말하자, 강씨는 "대선 때 우리가 자체 조사를 많이 했다. 분부장님(명씨)이 김 여사한테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라 했다"고 맞장구쳤다.

강씨는 이날 국감장에서 자신이 계산해 명씨에게 전달한 여론조사 비용이 3억7500만원이라고 밝히면서 "돈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돈을 안 받고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세비가 들어오면 잘라서 반을 지급했다. (총지급액은) 96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선 및 본선 후보 시절) 81차례 여론을 조사했고, 이에 대한 여(론)조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 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 보정이 아니고, 조작이냐"고 수차례 확인하자, 강씨는 "네"라고 답했다. 조작 방식과 관련해 강씨는 "20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20% 올리라는 것은, 20대·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것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외에 25명가량의 정치인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명씨와 김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강씨는 "김 여사가 명씨를 (서초동 고깃집에서) 처음 대면해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김 여사에게)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둘러 '장님의 무사'이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이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고 했다"며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와 나는 메시지와 육성을 직접 보여주고 들려줬다는 주장도 폈다. 강씨는 "(명씨가) 스피커폰으로 김 여사의 육성을 많이 들려줬다"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

죠, 잘 될 거예요"라고 전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하느냐"고 묻자, 강씨는 "윤 대통령이 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 여사) 친오빠랑 명씨랑은 소통을 잘 안 했다"고 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로부터) '체리파봉' 이모티콘을 받아 보여준 적이 있다"고도 진술했다. 이같은 강씨 주장에 여당은 "대부분이 명씨의 전언"이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강씨가) 김 여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과 명씨로부터 전해 들은 걸 섞어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오빠 전화 왔죠'만 육성으로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수잔 김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김정은이 숨긴 '러시아 파병' ... 군, 대북 확성기로 알렸다

“파병 북한군 6명 사망, 탈영도” 방송
최전방 북한 군인들과 주민 겨냥
‘해외전쟁 투입 가능성’ 알려 심리전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병력을 보낸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가운데 국군심리전단이 이를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복측에 알렸다. 북한 주민들은 물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북한 장병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보인다.

군 당국에 따르면 대북 심리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21일 오전 뉴스의

두 번째 소식으로 “지난 17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군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파병설을 공식화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여섯 명이 공습으로 숨졌으며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 대대를 편성 중”이라며 “현지 매체들은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의 소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지역의 한 군

기지에 다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는 BBC 방송 보도도 방송했다. 또 한-미 정보 당국이 “지난 6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상호군사원조 조항을 복원하는 조약을 맺은 이후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확인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이날 방송은 북·러 간 물밀듯 군사 거래를 북한 주민과 최전방 장병들에게 노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러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포탄 지원과 대규모 지상군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북 방송의 ‘1차 청중’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상이 될 수 있는 북한 장병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최전방 일대에서 방벽 건설 등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해외 전장에 자신들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나 북한군의 사망·집단 탈영 소식을 접하면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끼거나 흔들릴 수 있다.

다만 자유의 소리는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지 않았다. 사실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국정원은 앞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해당 기간 북한의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 완료했다”며 위성사진 등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속 4개 여단(1만여 명 규모) 병력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북한 파병 폭풍군단, 한국 사는 미국인 15만명 인질 담당 부대

과거 북 ‘3일 전쟁’ 시나리오에 등장
김정은이 힘 싣는 ‘특수작전 부대’
“러 파병 통해 실전력 높일 가능성”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11군단)’이 과거 북한이 공개한 전쟁 시나리오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상 전쟁 초기 후방에 침투해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인을 대거 인질로 잡는 부대였다.

북한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2013년 3월 22일 ‘3일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1일 차에 남측을 향해 ‘불마당질’이라고 명명된 일제사격을 감행하면서 경비병부대(가벼운 무장으로 넓은 지역을 정찰·수색하는 특수전 부대)를 투입해 한국군 후방의 주요 군사시설과



2017년 5월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특수작전군. 지난 2013년 3월 북한의 ‘3일 전쟁’ 시나리오에도 등장한 이 부대는 김정은 시대 들어 별도 군종으로 분류되며 위상이 강화됐다. [노동신문=뉴스1]

산업 인프라를 타격한다. 이에 더해 11군단을 투입해 서울과 주요 도시에 체류 중인 미국인 15만 명을 인질로 붙잡

이들의 다수를 납치하겠다는 셈이다.

폭풍군단은 적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 몸값이 높은 인질을 최대한 확보해 향후 교섭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장에서 특수작전 부대의 역할에 주목한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분류해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북한 특수작전 부대의 실제 전력은 미지수다. 탈북자들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특수작전 부대에 대한 보급조차 원활하지 않다”고 증언한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연합훈련을 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도 전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뜰이나 익숙지 않은 지형·기후 조건에서 언어나 통신 문제로 소통에까지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지휘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은 한국전쟁 이후 파병 경험이 없는 데다 사용 장비와 처우 문제로 실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며 “이번 파병을 특수전 부대 실전 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 거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군에 붙잡혀 구금됐다. 우크라이나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자국 군·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 16일 이 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러시아 브란스크주 코마리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 쿠르스크주 코무토프카 지역에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돼 있었으며 북한군은 군사 목적의 ‘풍선’ 사용법을, 러시아군은 현대식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보도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파경... “성격 차이”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사진)가 4년 5개월 만에 이혼했다.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 불은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일정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왔



다”며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재는 중국 프로팀 베이징 궈안에서 활동하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딸 1명을 뒀다. 그는 2021년 유럽 무대에 도전해 페네르바체(튀르키예)와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난 해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입성했다.

조문규 기자

윤 대통령 “경찰 법 집행 보호위해 면책규정 확대”

경찰의날, 민생범죄 엄중처벌 강조
“마약·가짜뉴스, 새 위협도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을 빼집없이 환수하여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어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개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배의 악성 사기 ▶마약·사이버 도박 확산 ▶인공지능(AI)·딥페이크 악용 범죄와 가짜뉴스를 거론하곤 “새로운 위협에 맞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과학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서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꺾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 ▶교육 인프라 확충

등 처우 개선 약속을 재확인한 뒤 윤 대통령은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이라며 “저는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전달하고,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을 포상했다.

허진기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This is an advertisement.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2025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 ~ 12월 7일

2025년 플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 높이가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현재 메디케어 플랜 가입자 / 1960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 상 담 내 용 | 파트 A & B | 파트 C | 파트 D |
|-----------------------|---|------|------|
|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 | |
| 이중 특별 필요 플랜 |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 |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Sponsored by **세종바이오**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세종 송보감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공천 도와줄테니 2000만원 내라” 선거 노리는 정치브로커

도처에 있는 제2의 명태균 지역 연구없는 정치신인 1차 타깃 당원 명부, 주민 연락처 내밀며 유혹 기획·홍보·여론조사 등 선거 총괄 ‘부티크’ 식 컨설팅업체로 진화도 당선되면 이권·자리 요구도 많아

#.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A정당 소속으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김모 씨에게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양모 씨가 찾아왔다. 양씨는 “회장님이 출마할 수 있게 공천해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고 했고, 김씨는 양씨의 지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공천을 못 받은 김씨가 불법 공천현금 사실을 고발해 시작된 수사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았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면서 정치인과 정치브로커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브로커는 선거를 도우면서 만든 인맥을 바탕으로 이권을 노리고, 차후 공천 등에 개입하는 이들이다. 여론조사 업체와 인터넷 매체 대표로 활동한 명씨는 여론조사를 무기로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선거 전략부터 공천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토호 세력이 강한 지방일수록 정치브로커가 판을 친다”고 전했다.

정치브로커의 출신은 다양하다. 지역 건설업자, 직능단체 대표, 지역매체나 정당 출신 등 이들의 1차 타깃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정치 신인이다. 이들은 무작정 후보를 찾아가 실세라고 설레발치기도 하지만, 학연·지연·혈연이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의회의원 출신 인사는 “첫 출마 때



정치브로커 연루 선거 범죄 사례

| 유형 | 내용 | 형량 |
|---------------|--|-----------------------------|
| 이권 개입 | A씨(전 환경단체 대표)·B씨(정당인 출신, 2022년 6·1 지방선거 전주시장 선거 앞두고 예비후보에게 선거운동·자금 지원 대가로 이권과 인사권 요구 | 징역 1년 6개월 확정 |
| 브로커 알선 | C씨(전직 언론인, 2022년 6·1 지방선거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 소개하며 불법 선거 자금 받도록 중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공천 뒷돈 | D씨(당협위원장 사무국장, 2022년 6·1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자에게 공천 대가로 2000만원 요구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선거 컨설팅 업체와 결탁 |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2대 총선 전북 전주를 선거 앞두고 E 선거컨설팅 회사와 계약, E회사 당내 경선 일반 여론조사 대비해 권리원인 신분 속이는 ‘거짓 응답’ 유도 방안 제시 | 이 전 의원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자료: 법원

‘고등학교 선배’라면서 여러 명 다며 당선시켜 주겠다는 식이였 이 찾아왔다”며 “산악회 몇 개 다”고 했다. 정치브로커가 정치 신인을 공

략하는 무기는 연락처다. ‘경선=총선’인 여야의 텃밭일수록 당원 명부나 지역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하느냐가 본선 진출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되곤 한다.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가 급한 정치 신인에게 브로커가 내미는 연락처는 큰 유혹이다. 한국민의 힘 중진 의원은 “선거 때 전화번호 호 몇 천 개 들었다는 USB를 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 전략의 방점이 조직 선거에서 공중전으로 옮겨가면

서 정치브로커도 진화했다. 특히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면서 거대 양당의 당원이 크게 늘어 적은 수의 당원 명부의 효용이 크게 떨어지자 선거 컨설팅도 한다는 브로커가 늘었다. 정치권에선 기획·홍보·여론조사 등 컨설팅 업체를 ‘부티크(boutique)’라고 부른다. 선을 넘는 사례도 많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은 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거짓 응답을 권유하라’는 선거컨설팅 업체의 조언 등을 따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여론조사 업체 대표 C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해주면 ‘당선 뒤 20억을 주겠다’고 말하는 브로커도 있었다”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1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치브로커의 1차 목표는 돈이지만, 당선 후 이권이나 자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수백명이 상에 대한 인사권이 걸린 기초단체장 선거가 정치브로커의 주요 무대다. 인사 민원이 일부 통한다면 브로커는 한동안 지역의 막후 실세로 행세하기도 한다. 민주당 5선 의원도 “내 전화 한 통이면 5선 의원도 꾀꿍뾀한다”는 걸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이창훈 기자

“노인기준 65세→75세 해마다 한살씩 올리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해법 제안 “정년연장 등 통해 사회적 완충 역할 집에서 임종하게 돕는 제도도 추진”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으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이 회장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인 문제 해결과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4가지 청사진을 내놨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在家) 임종 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화관 건립·봉사자 지원 등이다. 특히 노인 연령의 단계적 상향을 제일

먼저 내세웠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 명이다. (2050년)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뺀 경우, 남은 중추 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하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높이는 걸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50년 노인 수가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거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등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이 생산인구로 남아있으면 노인 부양과 연금 등 여러 가지 초고령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다.

그는 “65세 중에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노인 연령 상향 속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가 되면 노인들이 생산직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년 연장 첫해 (65세)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생산 잔류기간을 10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노인 복지에선 등으로 연간 30조~40조원을 쓰는데, 이 비용을 직접 비로 처리하면 (노인들) 10년간 무리 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셈법이 나왔다”며 “부영 직원들도 10년 더 보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이다. 정부와 협조가 잘됐으

이중근 부영회장, 대한노인회장 취임



면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회장은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요양원 예산 지원과 재가 도우미 지원 등을 병행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생 지원·노인 복지를 위한 ‘인구부’ 신설도 제안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회장은 부영 직원들에게 자녀당 1억원을 지급하는 과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했다. 이 회장은 “한밤중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선 인구가 있어야 하는데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선거에서 대한노인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지난 17대 회장직을 역임한 데 이어 두 번째로 회장 업무를 맡게 됐다. 이 회장은 “노인들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장대하다”면서 “후손들을 생각하는 단체로 대한노인회를 육성하고 국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회장이 됐다”고 밝혔다. 정중훈 기자

국감장 또 불려나온 배민 “수수료 내릴 용의, 대신 쿠팡도 내려야”

‘중개수수료 인하’ 공정 입장 내비쳐 자영업자측 5%대 요구엔 “어렵다”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가운데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 측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

회 정부위원회의 국감감사장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그 부분(중개수수료 인하안 확대)을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배달앱·임점업체 상생 협의체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우대수수료 제도 도입안을 확대할 생각이 있다”라고 묻자 나온 답변이다. 당시 상생협의체 회의장에서 배달의민족 측은 중개수수료율을 기존의 9.8%에서 임점업체 매출에 따라 2~9.8%로 차등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측 단체들은 “수수료율 상한도 5%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반발했

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감감사 때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감감사장에 불려나왔다. 함 부사장은 다만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낮추고 2위 배달앱인 쿠팡이츠도 따라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이츠가 임점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배달의민족에서와 동일하게 매기

도록 요구(최혜대우 요구)하고 있다는 게 배달의민족의 지적이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행태를 방지한 체 배달의민족만 수수료를 줄이면 배민의 이익률이 낮아지고 쿠팡이츠의 배를 불리지만 할 뿐이라는 이야기다. 또한 함 부사장은 “자영업자 측 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수수료율 상한 5%대 이하)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김민중 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SELFOTO STUDIOS

가을 특선 10월 한달 동안 사진 2장 추가 무료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내만의 맞춤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우리말 바꾸기

‘나 자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내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등과 같은 자기 고백적 글이 많이 게재된다.

이같이 많은 이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내 자신’ ‘제 자신’과 같이 쓰곤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나 자신’ ‘저 자신’이라고 써야 바른 표현이 된다.

‘내 자신’과 ‘제 자신’을 풀어 써 보면 왜 틀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나’에 조사 ‘의’가 결합한 ‘나의’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이를 문장에 대입해 풀어 써 보면 “내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결국 “나의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와 같이 어색한 문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굳이 불필요한 조사 ‘의’를 넣어서 생긴 잘못된 표현이므로, ‘의’를 빼고 ‘나 자신’이라고 쓰면 된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다. ‘제’는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저’에 조사 ‘의’가 합쳐진 ‘저의’가 줄어든 말이다. “그때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역시 풀어 써 보면 “그때는 저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가 돼 영 이상하다. 이 또한 불필요한 ‘의’를 빼고 ‘저 자신’이라고 고쳐 쓰면 된다.

“내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문장도 “나 자신을 알라”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재정칼럼

강아지의 움직임과 주식 투자



이명덕
재정학 박사

저녁 식사 후 강아지와 산책하러 나간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강아지 목줄을 길게 늘인다. 강아지는 한껏 자유를 느끼며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런 강아지의 움직임만 주시하다 보면 정신이 쏙 빠진다. 주인은 강아지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목줄지를 향해 가야 한다.

50년 전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제목의 책이 출간됐다. 저자는 당시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던 버트 맥키엘이다. 책의 요점은 ‘주식시장은 한 마디로 제멋대로 움직(Random)이기에 그 변화에만 집중하면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단기간 변화는 강아지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 투자자는 강아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처럼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주식시장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며 주식을 사고 판다.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식 정보는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쏟아진다. 하지만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어떤 주식 정보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할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성공 투자로 이어진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실패하는 주식 투자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주식시장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예측(Market Timing)해서 투자하려는 것이다. 일반적인 투자자의 욕심은 최저점에서 투자하고

최고점에서 몽땅 파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가 침체기로 가는지, 실업률과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대통령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현시점의 주식시장 상황만 보고 내리는 투자 결정은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기 쉽다.

투자자 본인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다른 사람은 못하는 투자 결정을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투자의 90%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투자자(Institution)에 의해 이뤄진다. 그들은 정보력, 자금력, 맨파워 등에서 개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효과적인 투자를 위해서 온갖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다(We don't know what we don't know)’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주식 투자에서 짜릿한 흥분과 재미를 느끼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성향의 투자자는 뜨거운(Hot) 종목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은연중 주식 대박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복권을 구매하는 심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사무엘슨은 ‘제대로 하는

투자는 잔디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 비용이 높은 종목 투자는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다. 투자자 대부분은 비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어뉴이티는 이것저것 보장한다고 하지만 숨어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한 푼이라도 투자 비용을 절약하면 그만큼 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 투자에선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자 비용이 비싸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닐 확률이 높다.

비관적인 마음은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에 가장 필요한 시간, 즉 복리(Compound Interest)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5년간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14%가 넘는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도 12%이다. 투자금이 3배로 증가한 놀라운 수익률이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멩거는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주식 매수와 매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Waiting)에 있다”고 조언했다.

주식시장은 시점과 상황에 의해 변한다. 투자자는 의미 없는 강아지의 움직임에 집중하지 말고 주인이 가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 인간의 본성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규모는 더 커지는 것이며, 꾸준한 투자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열린 광장

고 김학송 선생 ‘헌정음악회’ 열었으면



이광진
문화기획사 에이콤 대표

대학시절 경춘선 완행열차에 기타 하나 둘러메고 친구들과 무작정 찾아갔던 강촌에 노래비 하나가 세워져 있어 소개해 드린다. 2005년 춘천시가 가로 4m, 세로 3.5m의 화강석으로 만든 노래비에는 다음과 같은 노랫말이 새겨져 있다.

‘날이 새면 물새들이 시름없이 날~으는/꽃피고 새가 우는 논밭에 묻혀서/씨 뿌려 가꾸면서/땀을 흘리고/땀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아래서/조용히 살고파라 강촌에 살고 싶어’

실감 김성취 선생이 목가적인 북한강 수변 강촌천 주변의 풍경에 반해 만들었다는 가요 ‘강촌에 살고 싶어’ 1절 가사이다.

이 가요는 국민가수 나훈아가 1971년에 발표하여 한시대를 풍미한 ‘불후의 명곡’이 되었는데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 LA의 원로 음악인 고 김학송 선생이다. 그는 1960~80년대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피아니스트, 악단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수많은 명곡을

작곡했다. 그의 노래는 나훈아, 조용필, 조영남, 이상열, 최현, 태진아, 송대관, 샌디김, 이미지, 김상희, 조미미, 방주연, 김부자 등 당대 인기 가수들에 의해 발표됐다. 그는 스타가수를 만드는 대작곡가로 명성을 날린 음악인이었다.

선생님은 1981년 미국에 이민 와 90년대 초부터 LA 한인 사회에서 이인섭 선생과 함께 가요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꾸준히 후배 음악인 양성에 주력했다. 그런 와중에 한인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곡을 여러 편 발표했다.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는 곡 ‘백년의 합성’ (이

인섭 작사/김학송 작곡)을 비롯해 429 LA 폭동을 겪으며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로 묶어준 노래 ‘한마음으로’ (이인섭 작사/김학송 작곡)를 만들었다. 또 역사적인 로즈퍼레이드 한인 꽃차 참가를 기념하는 꽃차 로고송 ‘하늘 높이 꽃차 타고’ (윤수경 작사/김학송 작곡)를 만들어 홍보에 크게 기여한 한인 사회의 소중한 문화예술인이었다.

1925년생인 선생님은 2016년 6월 별세했다. 내년은 선생님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LA의 후배 음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그의 음악인생 70년을 돌아보며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헌정음악회’를 개최해 보자고 제안한다.

마침 이인섭 선생이 작사하고 선생님이 곡을 만드신 미발표 유작들이 여러 편 있어 내년 ‘헌정음악회’를 통해 발표된다면 더 뜻깊은 무대가 되리라 생각한다.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참고, 상가

황계실 부동산
“최고 전문가”
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9일 오전 10시
장소 14641 Lee Hwy. #109, Centreville (누보 하우스 센터빌 오피스)
예약 황계실 (571) 239-6054 (선착순 20명)

| | | | |
|--|---|---|--|
|  <p>황계실 브로커 내집 동네 최고가로 파는 노하우 (최저 비용, 최대 효과) 2025 집 값 어떻게 될까? 내집 인제, 어떻게 사야할까?</p> |  <p>신대양 StateFarm 대표 사고와 클레임이 증가하는 요즘, 내 집 보험 점검 필수</p> |  <p>데니얼 유 내집 지붕 진단 및 라이선스 소유 업체 선정해야 하는 이유 / 방법</p> |  <p>이성호 Eruda Design & Build Inc (Class 'A' License) 대표 겨울철 내집 관리 요령</p> |
|--|---|---|--|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여행사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에이전트(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부터(인사이드)

12/22~12/28 크리스마스 특선 북프랑스+벨기에
 6박7일 \$2490+항공

12/25~12/31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7일 \$2390+항공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
\$6,790 +항공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7박8일 3/17~3/24
\$3,190 +항공

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0~5/13
\$4,590 +항공

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아그라,
 핑크시티자이푸르, 피터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
\$3,390 +항공

3월 페루일주
 Hola! 특별한 유산의 나라 페루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6박7일 3/23~3/29
\$2,990 +항공

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
\$2,990 +항공

2월 코스타리카
 국토가 국립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멋진 자연풍경을 자랑하는 곳!

4박5일 2/4~2/8
\$1,990 (항공포함)

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27~4/5
\$3,990 +항공

5월 발칸 크로아티아
 아픈 역사를 안고도 때문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발칸과 중세도시의
 품격 있는 건축물이 압권인 크로아티아

6박7일 5/7~5/13
\$2,990 +항공

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2/17~2/26
\$3,590 +항공

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6박7일 4/14~4/20
\$2,990 +항공

5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5/13~5/23
\$3,390 +항공

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
\$9,850 +항공

4월 정통 서유럽
 4/23~ 5/03
 5/20~ 5/30
 9/09~ 9/19
 10/09~10/19

10박11일
\$3,590 +항공

6월 아이슬란드
 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8박9일 6/3~6/11
\$5,690 +항공

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
\$5,490 +항공

4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8박9일 4/30~5/8
\$3,390 +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

8박9일 6/10~6/18
\$4,590 +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4/14~4/20 북방학 특선 남프랑스 6박7일 \$2990+항공
 4/15~4/25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11일 \$2990+항공

4/23~5/03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4/30~5/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4/30~5/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5/06~5/16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어)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8/14~8/20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8~9/15 알래스카 크루즈 7박8일 \$2190(항공포함)
 9/09~9/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9/16~9/26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9/24~10/04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9/30~10/13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13박14일 \$4590+항공

9/30~10/08 정통 동유럽 8박9일 \$3390+항공

10/07~10/13 크로아티아 발칸 6박7일 \$2990+항공
 10/02~10/15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11일 \$2990+항공

10/16~10/29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21~10/30 튀르키예 성지순례 (소아시아 7교외)
 9박10일 \$2290+항공

10/28~11/07 산티아고 순례길 10박11일 \$3590+항공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5차 10/22~11/1 (단종특선)
 6차 10/29~11/8
 2025 3/25~4/04
 2차 4/15~4/25
 3차 6/17~6/27 (영어)
 4차 9/16~9/26
 5차 10/14~10/24

한국관광의 모든것!
 1. 워싱턴 최초 디렉트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안호텔/여수 소노림/거제 소노림
 부산 그랜드호텔/경주 라안호텔/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3박4일 **서남권** \$899+항공 매주 일
 4박5일 **동해권** \$999+항공 매주 금
 5박6일 **서남+제주** \$1499+항공 매주 목
 9박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매주 일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야 \$590+항공
 푸켓 \$599+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다낭 \$499+항공
 대만 \$690+항공
 싱가포르 \$790+항공

일본 여행
 3박4일 \$999+항공
 5박6일 \$999+항공
 9박10일 \$26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연세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병원

성극 대니얼 +에미쉬마켓 당일
 11/14, 12/12 **\$199**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리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2일 \$499**

가을 단풍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0/25, 26 **\$159**

미동부 뉴욕 브루클린 댐보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몬트리올/퀘벡 플라즈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5박6일 \$1350
 대형버스 출발: 10/28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3일 \$650

뉴욕 1박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중음)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7일 \$1550+항공 **일출발**
옐로스톤 3박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22, 2024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새롭게 바뀌는 2025년도 AP 시험에 대해 알아보자

SAT, ACT에 더불어 AP 시험들도 기존 시험 방식과 형식들에 대해 변화를 줄 필요성을 느끼고, 다가오는 올해 2025 봄 AP 시험들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점들을 공표하였다. 전체적으로 바뀌는 AP 시험 시스템과 커리큘럼 및 시험 형식이 개편되는 AP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 Digital로 전환되는 AP 시험

AP Central(칼리지보드 산하 AP 시험 관리&감독 기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5년도 봄 시험부터 28개의 AP과목들에 한해 더 이상 스탠다드 페이퍼 형식의 시험들을 제공하지 않고, 과목에 따라 완전히 디지털로 변환하던지 혹은 하이브리드 형식의 시험을 제공한다.

AP Central는 보안상의 이유를 제시하며 기존 전국으로 운반되는 페이퍼 형식의 AP 시험들 보다 디지털로 제공되는 편이 문제 유출등을 포함한 보안 & 관리면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부터 SAT를 디지털로 전환한 칼리지보드 입장에서는 디지털로 시험들이 제공되는 편이 인력적인 문제나 예산 문제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디지털 AP 시험들은 학생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롬북, 맥북, 혹은 윈도우 체제의 랩탑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Bluebook"이라는 칼리지보드의 앱을 다운받아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기존의 페이퍼 옵션이 사라지는 시험들과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공되는 시험들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apcentral.collegeboard.org/exam-administration-ordering-scores/digital-ap-exams/28-exams-digital-2025>



그 외로 AP 제 2외국어 과목들은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지만 내후년부터 변화가 있을것이라 한다.

▶ AP 과목별 변경점

전체적인 AP 시험 형식 변화에 더불어, 세세한 과목별 변화점도 있다. 다뤄볼 과목은 AP Physics 1, 2, and C, AP Chemistry, AP Language and Composition, 그리고 AP Psychology이다.

▶ AP Physics 1&2

주된 변경점들은 커리큘럼상의 변화와 시험 형식에 대한 부분이다. 7개였던 AP Physics 1의 유닛들이 8개로 늘었으며, 기존 AP Physics 2의 첫번째 유닛이었던 Fluids가 AP Physics 1의 마지막 유닛으로 추가되었다.

AP Physics 1에서 커버했던 waves에 관한 내용들이 (mechanical waves, standing waves, sound waves, and the Doppler effect) 보다 자세하게 AP Physics 2에서 커버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AP Physics 1&2를 통틀어 50개의 객관식문제들이 (MCQ) 40개로 줄었다.

고, 그와 동시에 90분의 시험시간이 80분으로 줄어들었다

객관식에서 복수의 답을 물어보는 Multi-select 형식의 문제들이 더이상 출제되지 않는다

5개의 주관식문제들이 (FRQ) 4개로 줄었고, 다음과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주관식문제들이 출제된다: Mathematical routines,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s,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Qualitative/quantitative translation

▶ AP Physics C: Mechanics, Electricity & Magnetism

위의 AP Physics 1&2와는 다르게 커리큘럼상의 주된 변화는 없으나, AP Physics C에서 사용되는 특정 term들과 표현들이 AP Physics 1 & 2에서 배우고 사용된 언어로 고쳐지는 등 자잘한 변화가 있으며 시험 형식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바뀌었다.

기존 35개의 객관식 문제들이 40개로 늘었으며, 이와 동시에 객관식 부분 시험 시간이 45분에서 80분으로 크게 늘었다.

5개의 보기를 제공하던 객관식 문제들이 이제는 4개의 보기만 제공한다.

기존 3개의 주관식문제들이 4개로 늘었으며, AP Physics 1&2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주관식문제들이 출제된다: Mathematical routines, Translation between representations, Experimental design and analysis, Qualitative/quantitative translation

기존 주관식 부분 시험시간이 45분에서 100분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스케줄상 묶여있던 기존 Physics C: Mechanics, Electricity & Magnetism AP 시험들이 이제는 별개의 스케줄로 진행된다.

▶ AP Chemistry

AP Chemistry는 위의 AP Physics와는 다르게 시험에 있어 큰 변경점은 없고, 커리큘럼상의 자잘한 변화들이 있다.

4개의 유닛들과 6개의 토픽들의 이름을 재수정하여 커버하는 콘텐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게 바뀌었다. 토픽 7.13 (pH and Solubility) and 7.14 (Free Energy of Dissolution)의 순서를 바꾸 보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돕는다.

▶ AP English Language & Composition

특별한 변화는 없고, 5개의 객관식 보기가 4개로 줄어들었다.

▶ AP Psychology

언급된 과목들중 AP Psychology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 할 수 있는데, 커리큘럼과 더불어 시험 형식에 있어 전면 개편되는 부분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레이스 김 대표원장-아이엔트 에듀케이션
▶ 2면 'AP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지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쳐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메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었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무한한 에너지를 원한다면 태양을 가둬라

만약 먼 미래 지구에 존재하는 양만으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론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1923~2020)이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에너지는 결국 대부분 태양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체 에너지 중에서 아주 미미한 양만 수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태양 빛 중에서 지구의 표면에 닿는 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태양을 구의 형태를 지니는 구조로 완전히 가둘 수 있다면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모두 수확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를 '다이슨 스피어'(Dyson sphere)라고 부른다. 다이슨은 고도로 진보한 문명은 반드시 그것이 기반한 행성에 존재하는 양만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므로 언젠가 다이슨 스피어를 건설해 행성계의 별의 에너지를 완전히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바깥쪽으로 적외선을 복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에 의하면, 적외선을 복사하는 별을 찾으면 곧바로 고도로 진보한 외계 문명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간단히 말해, 태양 에너지는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들이 핵융합을 일으켜 헬륨의 원자핵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량 손실이 아인슈타인의 질량-에너지 등가 법칙에 따라 에너지로 변환되어 만들어진다. 여기서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드러난다. 같은 전기 전하를 지니는 양성자들은 서로 강하게

태양 에너지 일부만 쓰는 인류 핵융합으로 태양을 모사 수소폭탄도 핵융합 반응 원리 세계 주요국 핵융합 발전 도전

게 밀어낸다.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 강하게 밀어내는 양성자들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 태양은 무지막지한 중력으로 양성자들을 뭉칠 수 있다. 말하자면, 태양은 중력으로 가두는 핵융합 원자이다. 그럼 혹시 중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핵융합을 가둘 수 있을까?

레이저로 가두는 핵융합

우리는 이미 인공적으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다. 바로 수소 폭탄이다. 간단히 말해, 수소 폭탄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으로 이루어진 핵분열 폭탄을 기폭제로 활용해 수소의 무거운 동위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도록 초고온-초고압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소 폭탄의 외피에 설치된 핵분열 폭탄의 폭발은 강한 충격파를 발생시킨다. 이 충격파는 내부에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강하게 압축해 핵융합을 일으킨다. 문제는 수소 폭탄의 폭발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수소 폭탄의 크기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작게 만들면 어떨까? 이것이 다름 아니라 레이저를 이용한 '관성 가둠 핵융합'의 기본 아이디어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밀리미터 크



지난달 15일 프랑스 남부 카다라쉬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현장에서 첫번째 진공용기 부품이 조립되고 있다. [사진 ITER]

기의 작은 플라스틱 구슬에 담은 후 사방에서 레이저를 쏘면 구슬 표면이 폭발한다. 이때 발생한 충격파는 구슬 내부를 강하게 압축한다. 이로 인해 구슬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충분히 높아지면 마치 수소 폭탄에서처럼 중수소와 삼중수소 사이에 핵융합이 일어난다.

2022년 12월 5일, 미국의 핵융합에너지실험시설인 국립점화시설(NIF)은 사상 처음으로 투입된 레이저의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핵융합을 통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을 '점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불행히도 레이저 발생 장치의 효율은 좋지 못하다. 실제로 국립점화

시설에서 사용된 레이저 발생 장치는 사용 전력 대비 단지 1% 정도의 에너지만 레이저로 변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총 투입된 에너지의 약 1%에 해당하는 전력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수치타산이 맞지 않는다. 실용적인 핵융합 발전을 위해서는 중수소-삼중수소 구슬의 크기를 키우는 등 규모를 전체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자기장으로 가두는 핵융합

지금까지 실용화에 가장 가까운 핵융합 발전 방법은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는 '자기 가둠 핵융합'이다.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 플라즈마 속 전기 전

하를 띠는 입자들은 자기장이 걸린 공간에서 회전 운동을 하며 주어진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원통 주변으로 전선을 둘러 감은 솔레노이드 형태의 전자석은 내부에 균일한 자기장을 형성해 플라즈마를 그 안에 가둘 수 있다. 다만, 솔레노이드는 양 끝이 뿔린 구조라 플라즈마가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레노이드를 도넛 모양으로 구부러뜨려 양 끝을 연결하면 된다. 이 도넛 모양의 솔레노이드가 바로 토카막(Tokamak)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토카막을 이용하는 핵융합 원자로에서 점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2007년 10월 24일, 초대형 토카막을 이용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영어 약자 'ITER'(라틴어로 '같이'라는 뜻)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7개국 공동체가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ITER는 현재 프랑스 남부의 카다라쉬에 건설되고 있으며, 2039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카막의 성공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플라즈마 난류다. 난류에 빠진 플라즈마는 자기장의 속박을 벗어나 토카막의 내부 벽에 부딪힌 후 차갑게 식어버린다. 차갑게 식은 플라즈마는 핵융합을 일으키지 못한다. 결국,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플라즈마, 즉 인공 태양을 잘 가두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각도 전 세계 핵융합발전 연구자들은 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들에게 무운을 빈다.

박권 고등과학원 물리학과 교수

>> 1편 'AP 시험'에서 이어집니다

커리큘럼상의 큰 변화로는 기존 9개에 달하던 유닛들이 5개로 줄어들었고, 유닛 토픽들은 다음과 같다:

- Biological Bases of Behavior
- Cognition
- Development and Learning
- Social Psychology and Personality
- Mental and Physical Health
- 유닛들을 5개로 재정립함에 있어 그

에 따른 학습내용들이 달라졌고, 칼럼에서 언급하기에는 그 내용이 많기에 아래 링크로 대체한다:

<https://apcentral.collegeboard.org/courses/ap-psychology/revisions-2024-25/course>

시험상의 변화로는 객관식 파트의 문항수가 기존 100개에서 75개로 줄어들었고, 보기문항이 5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형식의 FRQ 문제가 2개 추가될 예정이다.

다만 객관식 부분에 있어 줄어든 문

항과는 반비례하게 시험시간은 90분으로 늘었는데, 이는 시험이 리서치 방법과 디자인, 데이터와 연구 결과 해석 등 더 어려운 문제로 무장하였기 때문이다.

주관식 부분에 있어서는 Article Analysis Question (AAQ)와 Evidence-Based Question (EBQ) 라는 새로운 형식의 문제 형식들이 도입되었는데, 간략하게 알아보자면:

AAQ에서 학생들은 연구 설계 요소(방법론, 변수, 윤리 지침)를 식별하고

출처에 사용된 기본 통계를 해석하며, 학생들은 연구 결과를 얼마나 잘 일반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논문이 연구에서 탐구하는 심리적 개념을 어떻게 지지하거나 반박하는지를 설명하게 된다. 학생들은 총 25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그중 10분은 읽기 시간이다.

EBQ에서는 학생들에게 공통 주제에 대해 요약된 세 개의 peer-reviewed 연구를 제시한다. 학생은 주제에 대해 주장을 하고 출처의 증거를 사

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증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AP 심리학의 관련 내용을 적용하여 자신의 답변을 정당화해야한다. 학생들은 15분간의 읽기 시간을 포함한 총 45분이 주어진다.

AP Psychology 시험에 대한 자세한 변화점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apcentral.collegeboard.org/courses/ap-psychology/revisions-2024-25/exam>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갤럭시부동산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명 더 있음

| 매매 / 렌트 | 금액 | 설명 | 주소 | 기간 | 세입자 | |
|---------|---------------|-----------|--|---------------------------------------|------|------------|
| ★ 주택 | M SOLD | \$900,000 | *계약 후 10일내 세입자 완료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 8*03 Fallstaff Rd, McLean, VA | 1년 | Non Korean |
| | Fairfax, VA | \$3,500 |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 3년 | 주재원 |
| ★ 사업제 | 델리샵 (DC) | \$150K |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 2년 | Non Korean |
| | 세탁소 (MD) | \$300K |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 1*11 Fallbrook Ln, Vienna, VA | 2년 | 주재원 |
| | | | | 1*02 Abbey Way, McLean, VA | 3년 | 교민 |
| | | | |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 2년 | 교민 |
| | | |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 2+1년 | 국제기구 | |
| | | | 1*89 Dawson St, Vienna, VA | 2년 | 교민 | |
| | | |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 2년 | 주재원 | |
| | | |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 3년 | 주재원 | |
| | | | 1*40 Kensington Rd, McLean, VA | 1년 | 주재원 | |
| | | | 7*51 Tremayne Pl, McLean, VA | 1+1년 | 주재원 | |
| | | | 411* 11th St, Arlington, VA | 2년 | 주재원 | |
| | | |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 3년 | 국제기구 | |
| | | | 2*69 Oakborough Sq, Oakton, VA | 18개월 | 주재원 | |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술 준비

수술없이 목, 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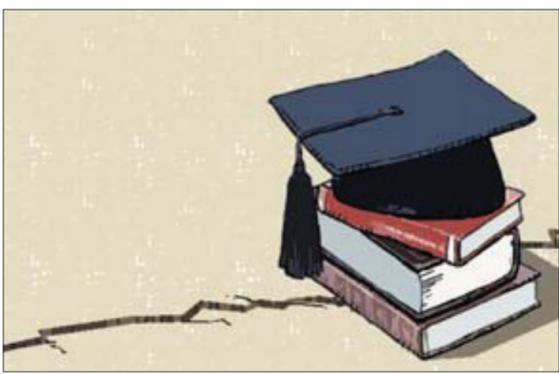
지방대학 활로, '인문사회 융합교육'에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30년을 교수로 재직해 온 필자가 2022년 전주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할 것이라는 언론의 비관적 전망이 안타까웠지만 '강 건너 불' 처럼 피상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막상 강을 건너와 보니 여기는 생존 문제가 걸린 치열한 전쟁터나 다름없다.

지방 대학, 특히 인문사회 계열은 입학생 부족, 저조한 취업률, 사회적 편견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문송합니다(문과라 죄송하다는 뜻)"라는 자조적인 탄식이 학생들 입에서 나오고, 구직난이라는 현실 앞에 실의에 빠진 제자들을 지켜봐야 하는 교수님들 역시 절실할 수밖에 없다.

개교 이래 60년 동안 이름을 바꾸지 않았던 전주대 '인문대학'이 '인문콘텐츠대학'으로 바꾸고, 교육부가 공모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사업(HUSS)'에 지원한 배경에는 대학·교수·학생이 느끼는 이런 절박한 위기감이 깔려있다. '지방 시대에서의 지역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로 전주대가 주관대학으로 경북대·동국대·한남대·한림대와 구성된 사업단(컨소시엄)이 HUSS에 최종 선정됐다. 치열한 노력의 결과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HUSS는 대학 내부, 대학 간의 공유·협력을 통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HUSS의 배경에는 대학 교육이 담당



40개 대학이 참여한 HUSS사업 융합교육으로 인재 키우기 목표 성과와 시너지 창출할 시간 필요

와 융합캠프 등을 통해 학생 교류를 진행하며 공동 학위를 수여한다. 전통적인 학과를 과감하게 인수분해해 '소단위 전공(Micro Degree)'을 개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PBL(문제해결학습)·해커톤·공모전 등 경쟁과 협업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한다. 학생의 발전을 위해 참여 대학 모두가 함께 책임진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정화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대학 간판이 아니라 공유 대학의 최적화된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고착된 대학 서열화와 지방 대학 소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3년이라는 한정된 사업 기간에 원하는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을지다. 사업에 참여한 1학년이 졸업하는 데 필요한 최소 4년의 시간이 주어지지 사업 성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이라면 대학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시너지를 창출해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역대 어떤 인력양성 사업보다 탁월한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한다.

이 사업에는 8개 사업단이 선정됐는데, 8개 사업단에 전국의 4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학생과 교수가 함께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구구조, 기후 위기, 위험사회, 지역 소멸 등의 사회적 난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혁신과 융합의 공유 대학을 운용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대학 올프 다니엘 엘러스 교수는 "대학이 미래 기술과 스킬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대학 간의 지식과 인프라를 공유하며, 융합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학들이 혁신적인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학들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통한 융합과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전국 40개 대학은 교육의 변화를 수용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어렵게 시작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제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계가 뜻을 모아야 한다.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책임에는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 20대 젊은이들이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박진배 전주대 총장

신경진의 민감(敏感) 중국어

네이구이

(內鬼·내부 스파이)

홍콩 영화 '무간도(無間道)'는 경찰과 범죄조직 사이의 첩보전을 다뤘다. 영화 속에서 경찰에 잠입한 조직원 류더화(劉德華)는 무작위 문자메시지로 단속을 알린다. 조직에 숨어든 량차오웨이(梁朝偉)의 존재를 포착한 뒤다. 모토로라 피쳐폰의 흑백 액정에 일곱 글자가 찍혔다. "내부 스파이가 있다. 거래를 중단하라(有內鬼終止交易)." 내부 스파이는 중국어로 안내(內), 귀신 귀(鬼)를 합쳐 '네이구이(內鬼)'라 쓴다. 개인 이익을 위해 내부 비밀을 누설하는 첩자다. 중국에서는 간첩을 귀신에 비유했다.

'네이구이'는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국어(國語)』에 내부의 도적을 말하는 '내귀(內宄)'로 처음 쓰였다. "어지러움이 안에 있으면 귀(宄)라 하고 밖에 있으면 간(奸)이라 한다. 귀를 막으려면 덕으로 하고 간을 막으려면 형벌로 한다(亂在內爲宄在外爲奸 御宄以德 御奸以刑)."

최근 중국 정계에서 '네이구이' 체포 소식이 부쩍 잦아졌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장에서 건국 75주년 리셉션이 열렸다. 식사를 마친 리간제(李干傑·60) 중앙조직부장이 급히 인근 청사로 복귀했다. 요직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중앙조직부의 수뇌부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차관급 리강(李剛·59) 검찰총장 징계안 처리였다.

리강은 중앙기울위원회가 1년 전 중앙조직부에 파견한 고위 간부다. 낙마 소식은 이를 뒤 중앙기울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 매체들은 '네이구이'를 잡았다고 타진했다. 회의록에 '네이구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대신 심상치 않은 용어가 가득했다. 정치충성 교육, 당성교육 등 낮은 표현은 물론, '일찍 적은 것부터 예방한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변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등의 구호도 등장했다. 수뇌부의 부패를 말하는 '등잔 밑 어둠(燈下黑) 방지'도 다짐했다.

리강에 이어 10일 천샤오보(陳笑波·59) 하이난(海南) 기율위 부서기가 낙마했다. 중국에서 기율위는 사찰기관이다. 기밀로 분류되는 수사 정보를 독점한다. 리강이 낙마하자 인사권을 가진 조직부와 검찰권을 가진 기율위의 갈등이 드러났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당의 비밀을 지킨다(保守黨的秘密)"는 중국공산당 입당선서의 핵심 문구다. '네이구이'를 중징계하는 이유다. 마침 최근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북한·중국·이란에서 정보원 모집에 나섰다. 내부 정보를 둘러싼 첩보전이 안팎에서 격해지고 있다. 베이징총총장



김상현의 과학 산책

어느 순간 반짝이는

뉴질랜드 출신 수학자 본 존스(1952~2020)의 농담이다. '양공과 수학의 차이'는? 그에 따르면, 하나는 과녁을 놓고 활을 쏘지만, 다른 하나는 활이 떨어진 곳에 과녁을 그린다. 허황한 비유만은 아니다. 오히려 목표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수학 연구가 더 위험하다. 종종,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수학계 전체의 발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야만 풀릴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유래한

'각의 삼등분 문제'가 있다.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해 종이에 그려진 각을 삼등분하라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60도의 각이 그려져 있을 때, 20도의 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언뜻 쉬워 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에게는 오랜 성숙이 필요했다.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수많은 연구의 화살들이 2000여년 간 쏘아졌다. 과녁들이 충분히 모이고 나서야 우리는 각도의 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19세기가 되



어서야 해결되었다. 자와 컴퍼스만으로 삼등분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결론이다. 다른 여러 난제 역시 현대 수학의 성숙이 있고 나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존스의 화살도 비슷하다. 원래 그는 함수의 성질을 연구하는 분야, 함수해석학의 전문가였다. 이 과정에

서 '존스 다항식'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열광한 것은 이론물리학자들이었다. 엉뚱하게도 시공간을 이해하는 열쇠가 존스 다항식에 있었다. 이 방정식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다는 것, 심지어 이론물리학자들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존스는 남의 강연에서 처음 듣고 놀랐다고 한다(아티아라는 대가의 강연이었다).

연구는 속제가 아니다. 반드시 건너야 할 외나무다리라는 더더욱 아니다. 기억 없이 생각 속에 침잠하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어느 순간 갑자기 반짝이는 진리와의 조우다. 고등과학원 수학기부 교수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시시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길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김경아의 독점 COMING SOON LIST!!

1. 윗브리지 타운홈
2.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3.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4. 매나사스 타운홈
5. 버크 싱글홈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9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CSS PROFILE 준비하고 계시나요?

12학년들은 대학 지원 신청을 하려고 바쁜 시기이다. 특히 일리로 지원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은 지원서 뿐 아니라 성적표를 지원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신청하고 추천서를 부탁하며 정신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지원 마감일을 신경쓰면서 각종 절차를 밟으라 바쁜 와중에 정작 재정보조 신청에 대해서는 무심경한 경우가 많다.

대학 지원 마감일 뿐만 아니라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까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대학 지원 마감일이 곧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과 같을 수도 있으니, 대학 지원 마감일을 체크하면서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도 같이 체크해서 실수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에 조기전형(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마감일이 10월 15일이라면 이미 10월 1일에 오픈이 된 재정보조 신청의 하

나인 CSS Profile 신청도 10월 15일까지 해주어야 한다. 강조하면 대학 입학 신청과 Financial Aid의 신청은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할 시기부터 함께 고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대학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대학 입학 신청은 일반적으로 조기 입학 신청(Early Admission)과 정규 입학 신청(Regular Admission)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기 입학 신청은 보통 11월 1일까지 입학신청을 해야 한다.

조기 입학 신청을 받는 학교들은 사립대학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을 하려는 학생들은 Profile이라고도 말하는 CSS Profile을 동시에 해주어야 한다. 조기 지원의 경우는 입학 신청 마감일과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이 11월 1일로 동일한 학교가 많으니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주의하도록 하자.

CSS Profile은 각 가정의 형편을 자세히 알릴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CSS Profile은 대부분의 사립대학들과 일부 주립대학들(UVA, WILLIAM&MARY 등)이 학생 가정의 수입과 자산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

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이다.

CSS Profile은 FAFSA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재정 관련 정보를 요구한다. 각 가정의 형편과 수입 구조, 각 가정의 자산 내역(금융 자산, 부동산 자산 등), 부모의 비즈니스/농장에 관련된 내용, 이혼 혹은 별거 가정인 경우 이에 관련된 내용 등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 요구하는 마감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11월 1일 또는 11월 15일까지이며 어떤 학교는 10월15일인 학교도 있다. CSS Profile은 College Board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 지원에 비해 정규 지원의 경우는 1, 2월까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늦지 않도록 CSS Profile을 제출해 주면 된다.

또한 CSS Profile을 할 뿐 아니라 IDOC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Institutional Documenta-

tion (IDOC) Service는 SAT시험을 관장하는 칼리지 보드의 서비스로서 가정의 택스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을 대신해서 모아서 대학에 전해준다. 그러므로 IDOC에 가입된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요구하는 서류들을 마감일 안에 IDOC으로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학자금 보조 신청 절차 중 FAFSA외에 CSS Profile을 신청해야 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것과, 그 서류의 마감일은 지원 학교에 따라 빠르면 11월 1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Financial Aid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신청 절차를 늦지 않고 정확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의 : 703-576-7803, Email : 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조기 전형 지원 마지막 점검 필요할 때 문법 오류·내용의 진정성 등 주의해야

10월 말은 12학년들에게 많은 부담이 가는 시기이다.

개학 이후 성적 관리에 대한 압박과 조기전형 원서 마무리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2023년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더 많은 학생이 조기전형을 선택함에 따라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작은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으니, 원서를 꼼꼼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살펴보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1. 문법과 철자 오류

잘 작성된 에세이라도 문법이나 철자 실수가 있다면, 심사위원에게 성의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는 해당 대학 진학에 대한 진지함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요즘은 문법 교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좋은 방법이기도 하나 그 방법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도 모든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므로, 여러 사람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지시 사항 불이행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이다. 대학에



서 제공하는 모든 지시 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추천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대학의 지시를 무시하고 특별활동에 대한 추천서를 첨가하면 지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많은 지원서를 검토하는 대학 입장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원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3. 중복 내용 작성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활동을 지나치게 강

조하려고, 동일한 내용을 여러 에세이에서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구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면, 보조 에세이를 통해 이 활동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은 지원자의 다양한 면을 알고 싶어하므로, 퍼스널 에세이와 보조 에세이를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지원 대학에 대한 조사 부족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위험이 있다. 단순히 대학 웹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대학의 문화, 가치,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깊이 이해한 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성이 결여된 지원서로 보일 수 있다. 대학 이름을 바꾸지 않고 재활용한 에세이는 흔히 발생하는 실수이므로, 반드시 각 대학에 맞춘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5. 과한 특별활동 나열

특별활동을 많이 나열하는 것이 장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이나 헌신이 보이지 않는 여러 활동을 나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학은 활동의 양보다 질을 더 중시한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깊이 참여한 활동이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억해야 한다.

6. 보조 에세이 무시

보조 에세이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학생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합격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격이 될 수 있다. 보조 에세이는 학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낼 중요한 기회이다. 이런 추가 에세이를 잘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 것

매년 마감일이 임박해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 문제나 급하게 마무리된 에세이로 인해 완성도가 떨어질 위험을 동반할 수도 있다. 마감일 4~5일 전에 원서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원서를 꼼꼼하게 점검한다면, 경쟁이 치열한 조기 전형에서도 실수를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변 원장 보스턴 에듀케이션

① 워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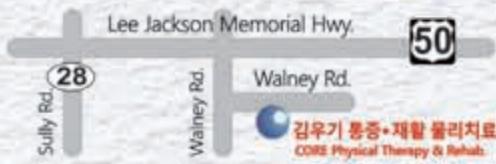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마왕의 노래는 여전히 신선하다

고(故) 신해철이 우리 곁을 떠난 2014년 10월 27일도 오늘처럼 찬 바람이 불었다. K팝의 절정, 숏폼과 AI(인공지능) 시대에 당도했지만 아직도 그의 노래는 가을 바람처럼 시리도록 신선하다. 신해철의 노래는 왜 흘러가거나 나이지 않는 것인가.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날아라 병아리’, 1994)이었다. 내가 신해철의 음악을 처음 만난 곳은, 사각형 교실에 웅크려 내 꿈의 무게와 성적표의 숫자를 저울질하던 시절이었다.

무한궤도 ‘그대에게’의 숨 가쁘게 내달리는 도입부와 매력적인 멜로디, 드라마틱한 전개는 주류 가요에서도 찾기 힘든 ‘신선한 친숙함’이었다. 조용필을 비롯한 1988년 대학가요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 모두를 환희로 녹다 운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곡의 작사·작곡·편곡·노래를 맡은 리더가 바로 신해철이었다.

신해철을 논하려면 적어도 100곡이 필요하다. 솔로 음반은 물론이고 그가 이끈 그룹 무한궤도·넥스트·비트겐슈타인의 앨범들, 윤상과 함께 한 ‘노펜스’라든가 사운드트랙 앨범 ‘세기말’ ‘정글스토리’도 들여다봐야 하며, 제

작에 참여한 ‘전람회’ ‘에메랄드 캐슬’에도 신해철이 묻어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신승훈, 015B, 윤상 등 신세대 최고 가수들을 총지휘해 만든 ‘내일은 늦으리’ 앨범과 타이틀곡 ‘더 늦기 전에’(신해철 작사·작곡)까지, 그의 디스코그래피와 장르는 방대하다.

이 방대함을 짚는 신해철의 인장은 ‘질문’이다. ‘아무런 말 없이 어디로 가는가/함께 있지만 외로운 사람들’(넥스트 ‘도시인’, 1992), ‘끝없이 줄지어 걷는 무표정한 인간들 속에/나도 일부일 수밖에 없는가?’(넥스트 ‘The Destruction Of The Shell: 껍질의 파괴’, 1994) 등. 밤의 정경을 분위기 있게 묘사한 ‘제즈 카페’(1991)마저 서릿발을 닮은 물음표의 연쇄다. ‘어느 틈에 우리를 둘러싼/우리에게서 오지 않은 것들/우리는 어떤 의미를/입고 먹고 마시는가?’

고도 성장을 일구는 가운데 우리 사회가 간과한 모순, 서구식 라이프스타일과 한국인의 정체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신해철 평생의 화두였다. ‘상투 틀던 머리 위에 무스/머리에서 발끝까지 상투를/변하는 건 세상인가/사람인가?’(넥스트 ‘Kmerican

Blues’, 1995)와 같은 의문은 전자음악 프로젝트 ‘모노크롬’(1999)에서 결국 육화했다. 테크노, 트립합 장르에 국악을 병치함으로써 상투 튄 머리에 무스를 바르듯 음악적 실험을 감행한 것이다. 테크노·펑크 록·매드체스터·프로그레시브 메탈·재즈 등 다 장르를 거침없이 꿰뚫은 도전 정신은 신해철 음악의 또 다른 인장이다.

보컬 신해철도 극단을 오갔다. 넥스트 2집 ‘The Return of N.E.X.T PART I: The Being’(1994)에서 초고음 메탈 보컬로 화했던 신해철은 유작이 된 마지막 앨범 ‘REBOOT MYSELF Part.1’(2014)에선 자신의 목소리를 수백 번 겹쳐 1인 아카펠라 곡 ‘A.D.D.’를 만들며 체중을 늘려 초저음을 내기도 했다. 위 밴드 수술(훗날 사망 원인이 됐던)로 고통스레 감량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오직 음악을 위해 중량을 감행한 것이다.

신해철 음악엔 한국 가요계의 고질병인 표절 시비도 따라붙지 않았다. 되레 영국의 전설적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가 그의 곡 ‘Machine Messiah’를 무단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났을 뿐이다. 김세환·김동혁·민영치 등 그와 함



거침없는 입담으로도 사랑받았던 신해철은 2014년 46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

해철 음악의 전부는 아니었다. 미학과 온기가 신해철의 성을 아름다운 노래로 휘감았기에 대중은 그의 이름을 어두운 고딕의 성채가 아닌 친절한 기사 의 정원처럼 기억한다. 그는 평범한 러브송에도 사회적 메시지를 입혔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넥스트, 1995)는 눈물 어린 발라드이자, 동성동본의 사랑과 결혼에 무슨 문제가 있냐고 따지는 저항가다. ‘Here, I Stand for You’(넥스트, 1997)에서 ‘나’는 사랑하는 ‘너’를 위해 뭐든 하겠다는 다짐이 담긴 구애 대신 이렇게 다짐한다. ‘세상과 싸워나가며/너의 자립

마련하겠어.’ 마왕으로 불렸지만 끊임없이 한계와 싸웠던 철인(鐵人), 고독한 철인(哲人)이었던 한 사람이 10년 전 돌아갔다. 철벽같은 안개의 성, 바로 자신에게로 영원히. 철학적 의문과 전위적 실험만이 신

해철은 ‘음악적 돈키호테’다. 하고픈 음악의 청사진이 뚜렷했고, 강철의 의지와 실행력은 주변의 베테랑 음악인들도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철학적 의문과 전위적 실험만이 신

그린의 이변... 파주서 열린 LPGA 뉘아쳤다

(호주 골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최혜진(25)이 2주 연속 톱 5에 올랐다.

최혜진은 20일 경기도 파주 서원힐스 골프장(파72·6666야드)에서 열린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로 5타를 줄여 함께 16언더파 272타로 성유진(24)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11언더파 공동 16위로 처졌지만, 마지막 날 성적을 끌어올리면서 상금 1억4300만원을 받았다.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뷰익 LPGA 상하이 대회에서 공동 5위에 올랐던 최혜진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상위권에 입성했다. 2022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그는 아직 우승 고지를 밟지 못했다.

호주의 해나 그린(28)이 함께 19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다. 시즌 3승을 거둔 그린은 이날 우승상금은 4억5000만 원을 받았다. 그린은 또 BMW 레이디

스 챔피언십에서 해마다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을 차지하던 전통도 깨뜨렸다. 2019년 신설된 대회는 지난해까지 한국 선수나 해외 교포 선수들이 차례로 정상을 밟았다. 초대 대회장하나(32)를 시작으로 2021년 고진영(29), 2022년 리디아 고(27·뉴질랜드) 그리고 지난해엔 이민지(28·호주)가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마지막 날 버디 6개를 잡아낸 쉐린 부티에(31·프랑스)가 함께 18언더파 준우승을 차지했고, 잔네티 완나센(20·태국)이 17언더파 3위를 기록했다. 유해란(23)과 임진희(26)는 각각 15언더파 공동 6위와 14언더파 공동 8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한국식 갈비 파티를 열었던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는 13언더파 공동 12위를 기록했다.

최혜진은 지난 2018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하자마자 신인상과 대상을 거머쥐면서 일인

자로 발돋움했다. 2020년까지 3년 연속 대상을 휩쓸었다. 그러나 LPGA 투어로 무대를 옮긴 2022년 이후엔 우승하지 못했다.

지난 3년 동안 마음고생을 한 최혜진은 최근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반기엔 5차례나 컷 탈락했지만, 후반기 들어 컷 탈락 없이 톱 10에 4차례 입성했다.

최혜진은 “샷 감각이 많이 좋아졌다. 특히 퍼트가 잘 떨어지면서 전보다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다”면서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부족했다. 샷도 좋지 않았고, 퍼터도 말을 듣지 않아 힘들었다. 그래도 최근 샷 감각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찾았다. 올 시즌 4개 대회에 더 나갈 예정인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개막을 앞두고 서원힐스 골프장 측은 코스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



해나 그린(왼쪽)이 20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스페인 세례를 받고 있다. 호주 출신의 그린은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하는 대회 전통도 깨뜨렸다. [AP-연합뉴스]

어지면서 이 골프장의 잔디(켄터키 블루그래스)도 고사 직전까지 갔다. 국내 유일의 LPGA 투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골프장 직원과 관계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코스에서 잔디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최혜진은 “지

난여름 날씨가 더워 국내 골프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골프장 측에서 잔디 관리에 신경을 써준 덕분에 코스 상태가 괜찮았다. 그 덕분에 선수들도 큰 어려움 없이 경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곽봉준 기자

헤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0.9% | 0.0% | 0.0% | 53.9% | 42.9% | 2.3% | 0.0% |
| 매우중증 | 중증 | 노화시작 | 주의 | 나쁨 | 매우나쁨 | |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영치

sciatica 좌골신경통

엄드리면 통증

허리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뒤로 퍼기 힘들다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뭉치

발목 뭉치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의원
뇌신경 조절
한 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월레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안전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 | |
|-------|-------|
| 1 BOX | \$100 |
| 2 BOX | \$200 |
| 3 BOX | \$300 |
| 4 BOX | \$400 |
| 5 BOX | \$500 |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WE ARE HIRING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 구매부 0명
-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LA mart 구인

LA 마트내 볼티모어지점 스페니쉬 베이커리 임대하실분

문의
410-646-150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 Lease end
- Machine less used
- Low price
-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정선화 보험

건강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금 매 한식+일식 센터빌 VA

- ▶연매상 100만+25만 급하게 처리원함
- ▶롯데에서 가까운 거리
- ▶꼭 사실분만 연락바람

AGENT 환영
443-631-3125
SERIOUS INQUIRIES ONLY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쟁력있는 보수 (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 (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틀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동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 (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 (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걸려서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 요양원에서 일하실 풀/파트 타임 입주 가능. 경력자 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숙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 메릴랜드 JESSUP - 화장품출세일 (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화, 수, 목, 같이 일 하실분 구함 남녀 전부 환영 (문자요망) 443-991-9331

▶▶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스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 240-246-4477

세탁소/기타

▶▶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 (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 571-294-0057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사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파트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 443-828-7777

▶▶ MD 아룬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옥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 엘리컷시티타운홈렌트 메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 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 놓음 240-393-5530

▶▶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 1. 세라미스트 첫 3개월 연봉 12만 2. CAD/CAM 경력자 첫 3개월 연봉 6만 703-597-0955 (문자요망)

▶▶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jwi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중언어 가능/dkbclinic@gmail.com 757-384-5757

▶▶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h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 Smart Insurance P&C (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 (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 우대 (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가능자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파트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 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인을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력자 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 | |
|-------|-------|
| 1 BOX | \$100 |
| 2 BOX | \$200 |
| 3 BOX | \$300 |
| 4 BOX | \$400 |
| 5 BOX | \$500 |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중앙일보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다직'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 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쉬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숙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92차권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Honest Grill 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텍사스드넛센터빌베이커조구함(아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에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 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광통밴 냉장캠,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에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301-537-3800

No.1콜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동품 이조기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종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종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박스배달요원을 구합니다.
애널빌.운전가능자
571-242-3736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훔벌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종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싱글홈 지하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 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or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7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에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남여 직장인/유부/\$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에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렌트\$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 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별도, 샤워, 화장실, 인터넷. 유틸리티 포함. 한인마트 2마일.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애난데일에 위치한자택렌트합니다. (알링턴2마일, DC7마일). 3층, 7베드룸과 7베스전체 7500+sf의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디없는분도가능합니다. 월\$7,495. 703-244-3453

애난데일 큰주택내의 단독 화장실 딸린 방 렌트. DC까지 7마일. 집앞에 버스탑업 있음. 703-244-3453

애난데일에 위치한 주택 렌트합니다. (알링턴 2마일, DC 7 마일). 5500sf의 아름다운 집입니다. 크레디 없는 분도 가능. 703-244-3453

실악가든 근처 싱글홈 방 1. 화 1. 냉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 별도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한강위 방 1/화 1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 타운하우스 방 1/욕실/유포 센터빌롯데근처 571-970-8048

▶▶ 애난데일 아파트/한강위/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여자분 환영 703-505-5698

▶▶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코너 근접 703-307-2473

▶▶ 교통 편리한 애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층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 애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703-598-6087

▶▶ 1. 애난데일 한강식당뒤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 가능 703-395-4380

▶▶ 첼턴 타운하우스 반지하 워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근처

워아웃, 방 2, 거실, 화장실, 풀키킨, 워셔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 애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 애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 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 2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애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층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 4, 화 4, 편리한 램블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 4, 화 2½, 1, 612s.f.,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립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카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앤지 부동산 사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위해 함께 고심해드립니다 571-550-7658

▶▶ 러커 | 식당 | 카페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구인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풀타임 내니를 구합니다! 703-822-7810

▶▶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규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췌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속속 걸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의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귀국 관계로 가사일체를 헐값이나 무료로 드립니다. 허백련, 청정동 고미술 품과 돌침대 가재 도구 다수의 그림과 수백권의 책 무료로 드립니다 443 799 2124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셀 영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장 외...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모든공사, 추정부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버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시,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부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 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민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축,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팅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앨런)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이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com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기 돌반지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keep (something) up; (무엇을) 계속하다

(Scott comes into the office and takes off his raincoat ...)

(스카트가 사무실로 들어와 비옷을 벗는다 ...)

Scott: Driving in the rain is a pain in the neck.
스카트: 빗길에 운전하는 게 신경 쓰이네.
Marge: It's supposed to keep it up for a few more days.
마지: 며칠 더 계속 운전엔 신경써야 될 거야.
Scott: As far as I'm concerned the drought is over.
스카트: 내가 보기엔 가뭄은 해갈됐어.
Marge: That's not the way the water department sees it.
마지: 수도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보던데.

Scott: Do you think they're telling the truth or just trying to scare us?
스카트: 수도국이 말하는 게 진짜 같아 아니면 그냥 겁주려는 것 같아?
Marge: I don't know but I read in the paper that it'll take a lot more rain.
마지: 모르겠어. 하지만 신문에서 보니까 비가 한참 더 와야 된다던데.
Scott: I don't care what they say. For me the drought is over.

스카트: 신문에 난 건 상관 안 해. 내가 보기엔 가뭄은 해갈됐어.
Marge: I don't know if it's over or not but I believe clean water will be a serious problem for years.
마지: 가뭄 해갈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수질 문제가 심각할 건 확실해.
Scott: We've already cut down on our water use. What more can we do?
스카트: 물 사용량은 벌써 줄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더 있어?

Marge: Now we have to worry about keeping it clean.
마지: 이제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신경 써야지.
기억할만한 표현
▶ a pain in the neck: 귀찮은, 성가신.
"Most of the students think their teacher is a pain in the neck."
(학생들은 대부분 선생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날말퀴즈

| | | | | | | | | |
|----|----|----|----|--|----|----|----|----|
| 1 | | 2 | | | | 3 | | 4 |
| | | 5 | 6 | | 7 | | | |
| 8 | 9 | | 10 | | | | | 11 |
| | 12 | 13 | | | 14 | 15 | | |
| | | | | | | | | |
| | 16 | | 17 | | 18 | | 19 | |
| 20 | | | 21 | | | | 22 | 23 |
| | | | | | | | | |
| | | 24 | | | 25 | 26 | | |
| 27 | | | | | | | | 28 |

가로열쇠

(1)선박이나 비행기가 항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 (3)곰팡이 쓰는 기초 공식 (5)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7)남자로 태어난 자식 (8)새로운 종류.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10)아버지, 어머니의 어머니 (11)작은 구멍을 뚫는 데 쓰는 도구. 쇠로 만들며 끝은 뾰족하고 자루가 달려 있다 (12)거지, 풀썩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 (14)운전석과 뒷좌석 사이를 유리로 칸막이한 호화로운 대형 승용차. 공항의 여객을 나르는 버스 (16)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안목 (18)생각이 어리석고 하는 짓이 아무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다시 또 ~처럼 굴면 혼난다 (20)물거나 물 밑의 모래 또는 자갈 속에 섞인 금 (21)음식을 차려 놓고 돌려앉아 먹게 만든 탁자에 까는 보자기 (22)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함 (24)혼인할 자리 (25)싸리나 대나무 껍질로 울이나 춤이 없이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그릇. 용수가 ~이 되도록 우긴다(역지를 쓴다) (27)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 (28)물이나 술을 담아서 따르죠

세로열쇠

(1)나무를 파서 만든, 진 땅에서 신는 신 (2)소나 염소 따위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3)불을 때어 난방을 하는 온돌에서 방바닥 부분 (4)여성들이 치마 바로 밑에 입던 속옷. 모양은 한복 바지와 비슷하다. □속 (6)매를 부리면서 매사냥을 지휘하는 사람 (7)관소리에서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 (9)체내의 세포가 자율성을 가지고 과잉으로 발육한 것. 악성 ~ (11)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체 (13)어류에 발달한 호흡 기관. 붉은 찻빛 모양이다 (15)돈이 한 푼도 없음 (16)외부의 자극에 따라 미묘하게 움직이는 마음. 일성호기가 나의 ~을 울리는구나 (17)편안히 쉬 수 있는 곳 (18)마른 해삼, 새우, 목이버섯, 표고버섯, 닭고기, 죽순, 파, 완두콩 등 여덟 가지 재료에 녹말을 부어 걸쭉하게 만든 중국 요리 (19)사는 곳을 옮김 (20)야구에서 볼넷과 몸에 맞는 공 (23)양털을 표면에 보풀이 일게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24)혼인할 때 필요한 물건의 품목 (26)밥을 먹을 때에 곁들여서 한 두 잔 마시는 술

스도쿠

| | | | | | | | | |
|---|---|---|---|---|---|---|---|---|
| | 1 | 6 | | | 8 | | 9 | 4 |
| | 5 | 8 | | 7 | 4 | 3 | | 1 |
| 7 | | | | | 6 | | 5 | |
| | 8 | 1 | | 4 | 9 | | | 7 |
| | 2 | 4 | | | | | | |
| | 3 | | | 5 | | 1 | | 9 |
| 8 | | 3 | 4 | 9 | | 5 | 2 | 6 |
| 1 | | 2 | 3 | | | | | |
| | | | 2 | 8 | | 9 | |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3 | 1 | 6 | 2 | 8 | 7 | 5 | 9 | 4 |
| 8 | 7 | 4 | 5 | 9 | 3 | 2 | 6 | 1 |
| 9 | 2 | 5 | 1 | 6 | 4 | 3 | 7 | 8 |
| 6 | 4 | 1 | 2 | 5 | 8 | 7 | 3 | 9 |
| 5 | 8 | 9 | 3 | 1 | 7 | 4 | 2 | 6 |
| 7 | 3 | 2 | 6 | 4 | 9 | 1 | 8 | 5 |
| 2 | 5 | 8 | 9 | 3 | 1 | 6 | 4 | 7 |
| 1 | 9 | 3 | 4 | 7 | 6 | 8 | 5 | 2 |
| 4 | 6 | 7 | 8 | 2 | 5 | 9 | 1 | 3 |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 | | |
|---------------------------------|--|--|
| 성명 (Name) | 영문 (Eng) | 한글 (Kor) |
| 주소 (Address) | | |
| 연락처 (Phone #) | Home | Cell |
| 구독료 (Subscription Fee) | 1년 선납 \$150 |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
| Card Info |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 카드 유효 기한 EXP. DATE: / / CVS: month year |
| 신청서 보내실 곳 |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
|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스시셰프-폴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홀트 식물원
 각종 한국과일 나무와 씨앗 / 각종모종 (909)625-4577
 11602 Ramona Ave, Chino, CA 91710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구인 매매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이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묘지 급매(주인)
 2자리에 \$9,500(네고가능) Glen Abbey Memorial Park내 무궁화 등산 한인묘소 위치 좋고, 전망 좋음 (818)515-0136 Mr.Jung

기타 지역

구인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손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통받,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이곳만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대 \$1,400 450g
 특대 \$1,800 450g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어??!!**
 The JoongAng Chicago, New York, Washington DC, Atlanta, Los Angeles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e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e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